(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11-712　1982년1월1일(금), 2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Saturday, January 1. 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JAN 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새해 서울의 여명(黎明)

〈신년시조〉

새해의 장(章)

시 : 이 석 현
사진 : 이 축 길

광음(光陰)이 교차되는
인간사
자정 무렵

차례상에 둘러 앉아
지열(地熱)을 도닥일 제

하이얀
겨레 마음에
납시는가 한배님들.

◇

조상적 명절풍습
이어 내릴
오직한 얼

온타리오 호숫가에
복조리도 내어걸면

보신각
인경 그 소리
낯선 땅에 번지네.

◇

록키산 세계 지붕에
만년설
포부 얹고

주고 받는 수인사에
자하동(紫霞洞)골 한인사회.

인디언
모닥불 위에
태극기 펄럭이네.

◇

연륜 엮고 한양으로
쌓아가는
겨레의 탑.

할배가 들려주는
열두달은 삶의 명제(命題)

펼쳐든
세계사 위에
코리아를 고인다.

※자하동 — 고려시대 송도(개경)의 이상향(理想鄕)

한때 한·미군 초비상

미드웨이 항모 한국해역 급파
「폴」사태 틈탄 북한남침 우려

지난 17일 폴랜드에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수일간 미국 국방성과 한국군부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 초긴장 상태에 있었음이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4일자에 의해 밝혀졌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군의 동계 군사훈련이 과거와는 달리 좀더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교통기관을 대거 군사용으로 돌린점을 포착했다.

정보 분석가들은 미국이 폴랜드 사태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안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를 극히 우려했다.

미 국방성 수뇌부는 일본에 정박중인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급히 무장시켜 2척의 호위함과 함께 한국해역으로 급파했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완전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원래 미드웨이는 정비장업을 위해 일본에 도착, 탄약등 무장을 푸는 중이었다.

북한군의 군사훈련은 다행이 불상사 없이 끝났으나 미국정부는 국제정전위원회 소집을 요청, 북한측에게 보기드문 이번 군사훈련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청키로 했다.

북한은 　　　 전투요원, 항공기등에서 남한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유지, 항상 남한의 위협이 되고 있다.

南北韓軍事力 比較

구분	남한	북한
陸軍	21個師團 約 52萬名	40個師團 約 60萬名
海軍	約 110隻 約 8.2萬톤 (구축함·호위함 17隻) ※海兵隊 1個師團 約 2.3萬名	約 480隻 約 6.7萬톤 (잠수함 16隻)
空軍	約 360機	約 615機

문협, 신춘문예 발표
시 가작「고목」

캐나다한국문인협회(회장 박충도)가 교포문화 향상, 더우기 「이민문학」 설정작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실시해온 「신춘문예」현상모집 제5회분이 지난15일 마감, 27일의 예심, 본심을 거쳐 최종심에서 시 1편을 "가작"으로 뽑는 흉작을 면치 못했으나, 1일자로 입상자 발표를 했다.

시부 가작 : 「고목」 (정봉회)

그동안 웬만한 숨은 문재들은 대개 노출되었고, 근년 이민의 문이 좁혀지면서 신춘문예 응모자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 응모자수는 예년보다 더욱줄어들었다.

시에 7명의 18편, 수필1편, 단편 2편, 회곡1편, 모두 11명의 22편의 응모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응모자 거주지역별로 나누면, 메트로 토론토가 가장 많고, 온타리오주는 챠탐, 오타와, 웨스턴, 피터보로, 스톤힐, 멀리는 캘가리, LA까지 지역적으로 넓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옆)

謹賀新年

지난6년간 미도파백화점을 이용하여주신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미도파백화점 대표 장 추 신
(B) 536-1692, (R)245-3539

2ND CLASS MAIL NO. 5248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개(犬)해의 문을 여는 첫 인사

=각계 지도자의 새해 메시지=

다채로운 행사의 해로

박 인 순(토론토한인회장)

◇박인순씨

교포 여러분에게 못다한 묵은해를 보내면서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편안과 기쁨이 넘치며 사업에도 번영이 더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한인회 회장직을몇달전에 맡은 이래 교포 여러분의 실정을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읍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훌륭한 업적들을 성취해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인회는 교포여러분의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봉사의 심부름꾼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단체로서 요망사항이 있을때도 힘껏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송년과 신년을 맞이해서 교포 여러분을 모시고 친교의 밤이라도 갖고 싶었으나, 회장직을 맡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뜻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읍니다. 82년도말에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렵니다.

새해에 한인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중에서 중요한 것은 초여름에 있을 카라반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 민족문화의 일면을 다른 민족들에게 소개하는 길이어서 퍽 중요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가을쯤에 있을 퍼레이드 행사가 되겠읍니다. 현재 블루어 거리가 교포들의 상가로 변해가고 있는 이때, 사업적인 실력을 과시하고, 민족문화도 아울러 소개하는 퍼레이드를 블루어 거리에서 실시해보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TV코리아」를위해 그동안도 여러분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읍니다. 그러나 30분의 방영은 너무 짧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속한 시일에 1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토론토에는 30여개의 교회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인회가 교회들이하는일에 가능한한 협조하도록 하며, 또 교회들도 한인회를 늘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포들의 현실을피차 돕고 힘을 뭉쳐서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자랑스러운 일을 창조해 가야 하겠읍니다. 인종차별문제, 사업체들의 육성문제, 자녀 교육문제, 노인들의 보호문제 등 다 어려운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뭉쳐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포사회의 굳건한 단결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교포여러분, 부디 새해에는 모든 일에 성공하시고, 가정에 희망과 평안이 항상 같이하고, 교포사회를 위하여서도 공헌해 주시기를 빌어마지않읍니다. 여러분의 한인회는 미력이나마 다 바쳐서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될 생각이오니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더 빛을"

차선겸 (실업인협회장)

◇차선겸씨

밝아오는 임술년의 새해 아침!

존경하옵는 교민 여러분, 그리고 실업인협회 회원여러분께 인사 드릴 수 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귀댁의 번영과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축원하는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과거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해가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들은 이민1세이기 에 그 어려움은 한결 절실한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짧은 이민역사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어느 이민족보다도 착실하고 빠른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굳혀감은 크게 감사하여야 할 일이며 이는 또한 우리들의 긍지와 자부심 속에 차원 높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큰 자산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철인들은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 "도전의 연속"이라고 말하였읍니다. 우리가 뭉치고, 열심히 노력할 때 보람의 열매는 기약되는것이며, 우리의 후세에게 자랑스럽고 값진 유산과 교훈을 전수하여, 보다 나은 민족의 긍지와 삶의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갓 출범한 실협의 신집행부가 본협회 자체의 발전과 권익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적으나마 한인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 하면서 교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괴테의 임종시그가 서재에서 최후로 남기고 간 "좀더 빛을!" 이라는 명언을 상기하면서, 지금은 비록 장시간의 고된 일과에 역겹고 서글프다좌절치 말고, 우리 모두 보다 밝은 내일의 설계를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밝게 진군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하면서 신년의 인사에 대합니다.

謹 賀 新 年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리옵고、올해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도 좀더 좋은 신문、교민사회에 기여하는 신문을 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새해를 맞아 貴 가정과 직장·사업체에 萬福·繁榮이 있으시길 빕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직원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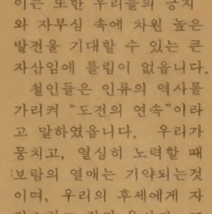
지국장 몬트리얼·정관성

오타와·이태은

런던·강상권

교민도약의 해

이 상 훈(주 토론토총영사)



◇이상훈씨

다사다망했던 신유년을 보내고, 1982년도 임술년을 맞이하여 오늘 제가3만여 교포 여러분에게 지상을 통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모국 에서는 제5공화국이 출범한 작년 한해동안 확고한 정치안정 속에서 온 국민이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루고, 침체되었던 경제회복을 기하게 되었으며, 대외적 으로는 전대통령각하의 방미정상회담및 아세안 5개국 순방등으로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한편, 경제, 문화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증대를 재다짐한바 있읍니다.

한편 한반도의 무력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온갖 대남도발을 계속 자행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는 북한측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 12, 6. 5. 양차에 걸쳐 남북수뇌회담을 제의하는등 남북대화를 촉구하여 긴장완화에 힘쓰는 동시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추고, 북괴의 도발에 대비하여 왔읍니다.

대교민관계에 있어서는 그간 해외교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온 정부는 지난해에 여권법을 대폭 개정, 국민의 해외여행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교민과의 상호방문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국민들의 해외 이주의 문호도 과감히 개방한 바 있읍니다.

이곳 토론토에서는 그어느해보다도 교민의 단결과 교민사회의 발전이 있었던 해라고 생각됩니다. 3. 1절 행사시에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규탄하는 교민의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6. 25행사시에는 30년전캐나다의 전우들과 함께 당시의 참전을 회고한바 있었으며, 8. 15에는 범교민의 참여아래 광복절행사와 제1회 전 캐나다교민체육대회를 가짐으로써 이곳교민의 단결을 과시하였으며, 그 무렵 노년회의 모국 방문 관광단이 대거 모국을 방문한바 있읍니다.

지난 9월 캐나다의 트루도 수상이 서울을 방문, 한.카 유대강화를 기한데 이어 88년도 하계올림픽을서울에 유치하는데 성공하고, 동시에 같은해 동계올림픽은 캐나다의 캘가리에서개최키로 결정되어 한국과캐나다 양국간의 거리감을좁혀 주기도 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협력면에 있어서도 계속 발전을 보아, 지난해의 한·카 무역고는 10억달러를 육박하고 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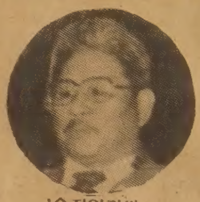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되어토론토의 한인사회 발전을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해주시고 있으며, 최근에 있었던 한인합창단의 "메시아"공연, 한인교향악단의 연주, 태권도 사범들의 경기 행사등은 우리 민족문화를 크게 과시한 것이라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읍니다.

오는 새해에도 교민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서로가 굳게 단결하고, 한국인의 긍지를 살려 어느 소수민족에 못지않는 자랑스러운 교포사회를 이룩해 주실 것을 빌어마지않읍니다.

끝으로 오는 새해 에도 교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빌며, 여러분 개개인이 하시는 사업이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은 평생사업

정 인 기(한국노년회장)



◇정인기씨

거룩하신 성탄의 계절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계절입니다.

캐나다에 계신 노년여러분의 옥체만안하심을 비오며, 5만교포 여러분에게한국노년회를 대표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노년회는 일취월장의 발전을 기하여 이제는 완전한 기틀 위에 올라섰다고 자부해볼때에 이모두가 회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끊임 없는 성원의 결실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별히 반가운 소식은 우리 노년회의 영어학교가이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움은 평생사업이기에 특히 새로운 땅에 와서 우리가 자녀들의 짐을 다소나마덜어주는 부모가 되려면, 어려운 언어이지만 우리도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않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노년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영어학교를 이용해 주시고, 답답한 회포를 푸는 기회가 되어질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지난 2년동안 한국노년회를 이끌어오면서 느꼈던 일들을 생각하면 평생 두고 잊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넘치도록 많은 일을 한건 아니나 대과 없이 꾸준하게 발전을 기했다고 보겠읍니다. 그동안 저의 미흡한 지도력에 많은 편달을 주시고, 단체일에 힘을 모두어 협동해 주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존함을 기억해 보며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새해 아침과 더불어 우리 한국노년회에는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될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단체를 이끌어 수고해 주실 새 회장단에게도 지난날 저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성원과 협동정신을 계속 보내주시어 우리 한국노년회가 해를 거듭할적마다 한장 한장의 벽돌이 더 쌓아져서 굳건히 되어갈 수 있다면 자리를 물러가는 이 사람의 흐뭇함 이란 더할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노년회원 여러분은 물론, 동양의 미덕을 지켜 부모님들을 잘 받들고 계신 여러 자녀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하느님의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새해 인사말씀에 대하는 바입니다.

社說

미래지향적 삶

— 과거정리와 앞날의 설계

문을 열고 나가사이다/하늘 푸르르고 들은 넓은데/어우러저 지줄대는 시냇물과 뭇 새들/아아! 얼굴에 그 주름을 펴고/뻗으면 바로 손 닿는/문을 열고 나가사이다.

묵은 해와 새해의 문턱에 멈추어 가슴 그윽히 제야(除夜)의 종소리를 새기면 우리 모두는 "인생시인"이 된다.

차분히 합장하는 자세로 돌아가 지난 365일— 크고 작고, 빛다왔거나 점점이 먹빛이 묻었거나— 자기의 묵은 궤적(軌跡)을 더듬어 정리하여 자찬(自讚)할 일은 더욱 늘리기로 결심하고, 후회스런 일들은 두번 다시 되풀이 않기로 굳게 맘먹는 미래 지향적 삶을 다지는 것.

그리고 시간의 흐름 그 하류로 흘러가,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훌쩍 털고 일어나 희망찬 새해의 문을 힘차게 열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과거를 정리하고, 장래를 설계하는 것은 슬기 있는 삶의 태도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은 크낙한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새해의 꿈, 의욕찬 한해 설계는 너무 범속(凡俗)한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하겠다. 생활주변의 일에만 얽매어,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거나 가슴칠 "뒷걸음 설계"는 잠재우고, 인간다운 보람 하나를 키워 나간다는 마음가짐이 소중하다.

한편 너무 허황되거나 지나치게 거창하여 1년후 82년을 마감할 때에 아쉬운 여운을 남기지 않도록,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서 값다운 일 하나를 새해에는 꼭 실현하고야 만다는 속다짐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해의 형이상학적자기결산이 "마이너스 인생"이었다면, 분발하여 새해에는 기필코 "플러스 인생"의 결산서가 나오도록 최선 다하기로 새해 이 아침에 포부와 의지를 굳게 먹음이 자기의 긍지! 남에의 빛 뿜은 인생길이 될 것이다.

그것은 훗날 언젠가 인생의 막을 닫는 날, 당황하지 않을 여유와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쌓는 길이라 하겠다.

후회 없는 한뉘를 보낸다는 것— 남에게 짐스러운 사람, 주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안되기로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서서 스스로 한 소리 크게 외쳐보는 것도 좋은 카타르시스(Katharsis)가 될 것이다.

사람의 존재가치는 잇속을 찾는 것에나 「나」 하나만을 위해 급급한 그런 자세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들 저마다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보내고 맞는 나날에 우리들은 흔히 그것을 잊고 그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는 지난 뒤에 가슴 치거나, "뭘, 남들도 다 그런데…" 하고 자기 합리화를 꾀하려 든다.

정녕 사람의 존재가치는 우애(友愛)의 손길을 남에게 뻗치는 것, 나보다 불우한 이웃에 대한 온정의 마음씀에 있다 하겠다. 이것은 일찌기 인류의 은인 메씨아가 가르침과 실천으로 깨우쳐준 바다.

더우기 힘겨운 이민생활에서 서로들 자기 이익만 추구함에서 그치지 말고,딱한 겨레에게 우선 조금이라도 도움 주려는 빛의 본질을 지니도록 저마다 노력한다면 그것이 번져 우리 한인사회는 얼마나 밝아지고, 명랑한 이민낙원으로 탈바꿈하겠는가!

나아가 우리의 빛다운 손길을 대외적으로 뻗쳐 타민족들에게까지 파급시킨다면 "위대한 문화민족 코리아"의 이미지는 이 이역만리에 크게 울림할 것이다.

새 날이 밝았다.

살인적 경제공황! 지구 곳곳에서 터진 열병같은 분쟁! 권력 또는 부(富)의 편재(偏在)로 말미암은 상대적 현상으로 기아(飢餓)선상에서 지옥맛에 허덕대는 "못살겠다!"는 아우성들— 그 모든 불협화음들을 피안(彼岸)으로 밀어내고, 바야흐로 덩두렷히 솟아오른 새해의 태양!

새 역사의 장이 지동을 일으키며 장엄히, 힘차게 펼쳐지면서 있다.

이날 이 아침, 우리 모두 진심으로 맞절하는 마음가짐으로 굳게 손잡고, 건설적 거보(巨步)를 힘차게 내딛자. 이웃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미소를 옮겨주는 역군 되려는 속다짐으로.

앞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 삶의 설계를 실천에 옮기는 역사의 창조자가 되리라는 의욕찬 의지로….

낙엽이 향수를 덮던 밤은/바람과 같이 가고/이제 눈 오는 마을에 발자국이 정다워/초승달에 행복을 그리노라.

신의주시서 폭동사태 수백명 사상, 중공피신

(도쿄 29일=연합) 지난 11월초 중공접경 북한 신의주시에서 발생한 민간소요로 수백명의 사상자가났다고 재일민단계 신문 통일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최근 북한에서 돌아온여행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동 신문은 이같은 사태발발은 정부후원 집회에서북한혁명조합의 반란 회원및 노동자연합과 북한 노동당간부및 지역정부관리 사이에 충돌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동지는 이번 폭동에 연루된 상당수의 사람들이중공으로 도망했으며 신의주시의 정부기관과 산업시설의 운영이 11월 중순에 끝난 소요이후 상당기간동안 마비되었다고 말했다.

◁휴간안내▷

본사는 신년호특집판(1, 2일자 합판)을 내고, 1~5일 휴무합니다.

다음호 현지판은 8 일자부터 속간됩니다.

그러나 휴무중이라도 4~5일은 일직이 근무, 광고·구독신청은 받습니다.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여권갱신 발급공고

여권갱신 발급업무가 당관에 위임됨에 따라 82년1월1일부터 여권갱신 발급을 실시코저 하오니 아래 기간내 여권갱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갱신 범위
   81년 9월30일 이전 발급 받은 여권
2. 여권갱신 기간
   82년 1월1일~82년 7월31
3. 여권갱신 발급 신청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1매
   2) 구 여권 사본(4, 5, 6, 7페이지) 사본1매
   3) 여권용 사진2매(여권신청서용1매, 여권발급용사진1매 첨부요함)
   4) 신원확인서3매(증명사진 3매 첨부요함)
   5) 증빙서류(여권종류에 따라 아래증빙서류 첨부요함)
      (가) 취업여권 : 재직증명서　(나) 동거여권 : 동거자의 체재증명서
      (다) 기술훈련 : 연수증명서
      (라) 상용주재원 : 재직증명서　(마) 문화주재원 : 재직증명서
      (바) 유학여권 : 재학증명서　(사) 거주여권 : 영주권사본
4. 여권발급수수료
   일반여권 미화 $60(단, 거주여권은 미화 $20)
5. 여권발급 수수료 면제
   81년 8월1일~9월30일까지 발급된 여권의 갱신시 수수료는 면제됨.

주 토론토총영사관

MESSAGE FROM THE PRIME MINISTER — MESSAGE DU PREMIER MINISTRE

CANADA

It is a very special pleasure for me to extend my greetings and best wishes to the readers of the Korean Times as we celebrate the New Year.

On my recent visit to Korea, I was struck with the enormous sense of history and cultural richness which is the proud heritage of every Korean whether they live in Korea, in Canada, or in another part of the world.

In Canada, we have just marked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multicultural policy of the federal government. It is a policy which envisions the equal and fair treatment of people from different origins and promotes respect for the cultural roots of all of Canada's people. Koreans in Canada are proud of the heritage they have inherited through the generations. All Canadians can be proud of the tolerance and respect which we are now building in Canada which will become the heritage of future generations. It is a solid foundation for peace and happiness for all.

Please accept my warmest best wishes for a happy and prosperous New Year.

Ottawa
1981

Pierre E. Trudeau

문화적 유산은 한인의 자랑

「한국일보」독자들에게

피에르 · 트루도(캐나다 수상)

◇트루도 수상

·새해를 맞아 「한국일보」 독자들에게 인사와 아울러 만복이 깃들기를 비는 마음은 대단히 즐겁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본인은 한국에 살건, 캐나다에 살건, 혹은 세계 어느곳에 살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할만한 거대한 역사적, 문화적 감각의 풍부함을 볼 수 있었읍니다.

연방정부가 캐나다에서 복합문화주의 정책을 편지는 이제 갓 10년이 됐읍니다. 복합문화주의는 각기 조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동등, 공평한 대우를 누리고, 전 캐나다국민이 각기의 문화적 뿌리를 존중하게끔 시도된 정책입니다.

캐나다의 한인들은 수천년동안 전해온 그들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캐네디안들이 지금 □ 쌓고있는 우리의 전통을 인내와 존경심을갖고 꾸준히 지켜나가면 우리의 후세들에게 커다란 문화유산을 남길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줄 굳건한 발판입니다.

새해에는 독자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번영이 깃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축원합니다.

오타와에서

1981

〈새해에 드리는 말씀〉

더한층의 역사적 발전을

이 규 현(주 캐나다 한국대사)

임술년의 새아침이 밝았읍니다.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희망과 번영이 같이하는 한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 신유년을 회고해 보면, 여러분의 모국 대한민국은 안정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정상에 박차를 가하여 다시 한번 한민족의 저력을 과시하였읍니다.

본인은 특히 작년 9. 30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우리의 수도 서울을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읍니다. 이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 역사적 결정으로, 모국국민과 함께 동포 여러분께서도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모국에서는 5년후의 이 인류제전을 훌륭하게 치러내겠다는 결의와 각오를새롭게 하고 있읍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기대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캐나다와 한국간의 관계에도 몇가지 기념비적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9월 캐나다 행정수반으로서는 최초로 트루도 수상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두 나라정부, 의회 실업계인사들의 교환방문도 전례없이 활발한 한해였읍니다. 두 나라 사이의 교역량도 대폭 증가되었으며, 모국의 은행이 캐나다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읍니다.

이러한 양국간의 관계가 심화될 수 있었던데는 동포여러분의 눈에 보이지않는 성원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되며,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재캐나다 동포사회에도 경하할 일이 있었읍니다. 지난 4월의 한인연합회 총회를 기하여 개천절인 10월3일이 캐나다 정부에 의해 "한인의

◇이규현씨

날"로 선포된 사실입니다.

오는 한해에도 지난해의 여러가지 업적들이 밑거름이 되어 모국의 지속적인 발전, 한·카 양국 우호관계의 심화, 그리고 동포여러분의 눈부신 번영이 이룩되기를 재차 기원합니다.

단결과 양심

김 병 진 (벡커협회장)

◇김병진씨

존경하는 전체교민, 그리고 우리벡커 푸랜차이즈회원 여러분, 세월은 빨라어느덧 파란많던 신유년도저물고, 대망의 새해 임술년이 밝아 왔읍니다.

소수민족인 우리가 이나라의 삶을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한 가정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지 않고서는 제아무리 개인적으로 우수할지라도 이나라의 국민들과 생존보조를 같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에는이민역사가 짧은 관계로 특정인을 제외하고서는 대다수가 공장이 아니면 구멍가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세대가 바뀌고 개인적으로 경제가 안정된다 할지라도 비지네스가 크면 클수록 단결의 힘이 아니고서는 정치적이오 경제적인 그어떠한 한계선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3만5천 교민 여러분, 혈통을 같이한 형제, 같은 민족끼리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배아파 하고 헐뜯지 말고 서로 뭉쳐 의논하면서 살아나가 봅시다. 말로만 뭉치지 말고, 희망의 새해부터는 실제로 뭉쳐 우리의 권익을 바로 갖고, 날로 심각해 가는 생존경쟁에 앞장서 나갑시다.

참된 미래의 행복이란황소같이 일만 해서 돈벌어 쌓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피땀 흘려 버는 돈을유효적절하게 또 값있게 사용하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마땅히 또 자진해서 내야 할 연1회 한인회비의 $10를 내지도 않으면서 한인회가 어떠니 저쩌니 하는 무리들 비양심적이고도 파염치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죽어도 감투 쓰기를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캐나다에서의 우리 동포의 수에 비하여 감투가 많은 것같읍니다. 사장, 부사장, 동창회장, 협회장, 이 사장, 저 사장, 이 모두 장자님만이라도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거 짓없는 양심으로 앞장을서 주었으면 하는 심정 간절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좀 더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욕심을 적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희망의 새해를맞이 하여 각 가정에 특별한 건승과 종사하시는 직장이나 경영하시는 각종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신년인사를 드리는바 입니다.

한인금융기관의 이점

한 상 훈(한인신용조합 이사장)

◇한상훈씨

안녕하십니까!

한인이 캐나다에 정식으로 이민 와 정착하기 시작한지 약15년을 헤아리는 동안에 한인신용조합과 가톨릭신용조합이 설립되어 구년(81년)으로 5주년을 맞게되었으며 구년에 은행법의 개정으로 캐나다정부의 인가를 얻어 한국외환은행의 분가인 캐나다외환은행이 영업을 개시하여 이제 우리 교민사회는 3개의 한인계 금융기관을 갖게 되었읍니다

현재 캐나다에는 일반시중은행을 비롯한 신용조합과 트라스트·캄퍼니(신탁은행)의 점포수가 인구 1, 800여명당 1개의 분포로 전역에 걸쳐있어 세계에서 인구당 금융기관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한인교포 3만에 한인금융기관 3개라는 숫자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인금융 기관의 장래는 희망적이라하겠읍니다.

우리 한인들은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을 대부분 캐나다은행에 맡겼음은 캐나다 은행을 더욱 살찌게 도왔고 캐나다은행 주주들만 더욱 부자되게 보태주어다는 결과가 됩니다. 바로여기에 한인계 금융기관의 피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한인을 위한 한인에 의한 한인의 금융기관만이 그 이익금을 한인사회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영리 대중은행인 한인신용조합의 존재가치를 재논한다면 군소리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연시를 당하여 교포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순조롭고 뜻하는 바 소망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행복·건강·평화를

폴·갓프리(메트로토론토시의회 의장)

연말연시를 맞이해 메트로 토론토 의회 의원들은 온토론토시민과 한국인에게 깊은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때는 행복, 회고가 교차되는 시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자유에 대한 행복과 우리가 누렸던 즐거움에 대한 회고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 친구들과 다시 만나 지난 1년간 받아온 긴장감에서 해방되는 때이기도합니다.

82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폴·갓프리 토론토시의회 의장은 한국계 캐나디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달 본사이전파티때도 특별히 본사를 방문, 교민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토론토시의회 의장은 메트로 전역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에 해당된다.

그는 본사에 특별히 신년메시지를 보내왔다.

미국, 소련에 강력히 대응

폴랜드사태에 책임추궁, 곡물수출금지

로날드·레이건 미대통령은 29일 폴랜드 사태를 조속해결하기 위한 노력의하나로 소련에 대한 테크놀로지 판매금지및 무역규제조치를 취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소련 선박및 항공기의 미국내 활동권을 박탈, 고성능 전자기어및 석유, 개스 장비등의 대소련 수출을 정지시켰는데 이 가운데는 시베리아와 서유럽을 잇는 3,840km거리의 천연개스송유관시설장비도 포함돼 있어 소련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폴랜드에서 지금껏 침묵을지켜온 자들을 대변하고 힘없는 자들에 힘이 되며 폴랜드 현 사태에 관해 소련및 폴랜드 지도자들에 강력한 회의를 품게끔 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는 대소곡물판매중단등도 예상된다. 소련은 현 회계년도에 31억달러의 곡물을미국, 캐나다등지에서 사들여가기로 결정했으며 이중15억 달러어치는 이미 도입했다.

발렌싸 정부와 대화재개

단식투쟁도 중단

연금상태에 있는 폴랜드 자유노조 솔리대리티 지도자 렉·발렌싸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해 그동안 거부해 온 정부와의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고 소식통들이 29일 전했다.

발렌싸의 가족들과 접촉한 소식통들은 대부분이체포된 18명의 솔리대리티상임간부회 전체의 의견을종합할 수 있는 한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해온 발렌싸가 28일 실제 대화를 개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렌싸가 정부와 대화재개를 결심한 것이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발렌싸는 그동안 2일간 단식투쟁을 해오다 25일 이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샤바방송은 29일 실레시안 석탄광에서 2주간 스트라익을 해온 12명의 노조지도자들이 군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렉·발렌싸

「아리랑」창간

중공교포들, 순한글잡지

(서울24일=연합)중공에 사는 한국인 거류민들이최근 순전히 한글만 사용한 계간지 〈아리랑〉을 창간했다.

이와같은 사실은 서울고려대학의 박용선교수가 최근 서울에서 발간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밝혀졌다.

「중공에서 발행된 한국문학지 〈아리랑〉」이라는제목으로 게재된 글에서 박교수는 〈아리랑〉은 소설, 시, 산문, 희곡, 고대한국민담, 노래및 여러 방면의 특집기사를 실었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아리랑〉 지에 기고하는 사람들은 현재남한에서 통용되는 숙어등 한글어법에 능통해 있다고덧붙였다.

근하신년

한국식품(본　　점) 532-2961
한국식품(동부지점) 261-6111
한국식품(서부지점) 742-7711

謹賀新年

SunLife OF CANADA

윤 호 영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B)922-3111 R)439-8885

* 저축성 생명보험
* 교육보험
* 주택보험
* 은퇴연금(R.R.S.P.)

윤 호 영

(B)922-3111
(R)964-3644

<새해의 지상강론>

송구영신하면서

박 희 민

(목사 ·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목사

지금은 1981년을 보내고 82년을 맞이하는 엄숙한역사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년간을청산하고, 빚지지 않은 새해를 살기위해 한해를 되돌아 보고, 또 한해를 전망하면서 삶의 옷깃을 경건히 여미어 봅니다.

송구영신은 옛것을 회개하고, 새것을 맞아들이는 결단이 없는 자에겐 결코 새것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겐 설령 새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옛것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새 삶, 새 사건,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읍니다. 우리에 게 무조건 행복과 평화를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삶, 새 역사는 그것을 추구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나에게참으로 새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을 성찰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지난 일년간 겉옷과 화려한 장식품으로 가리웠던 우리의 속옷과 내면의 삶을 이 시간 조용히 응시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나의 가장 깊숙한 곳, 때묻고 이그러진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리 기쁜 일이 못됩니다.

한해의 노을앞에 얼룩지고 이그러진 자신의 영상을 응시하는 심정은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뜻있는 괴로움입니다. 보람된 아픔입니다. 새 삶을, 새 사건을, 새 역사를 출산하기 위한 괴로움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 *

새해가 터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밝기 전에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읍니다. 지난 일년간 나의 삶에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이며,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 일년간 나의 삶에 가장 큰 충격을 갖다준 일은 무엇이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사건은 무엇이었읍니까?

그런 일들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나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주었읍니까? 나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은 무엇이었읍니까? 지난 일년간 나는 얼마나 성장했으며, 나의 꿈과 계획을 얼마나 성취했읍니까? 그 꿈과 계획이 바르고 가치있는 것이었읍니까? 혹은 무가치한 것이었읍니까? 지난 일년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뛰었읍니까?

지난 일년동안 우리의삶에는 과오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읍니다. 미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읍니다. 고독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읍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읍니다. 아니 그런 것만도 아니었읍니다. 거기에는 꿈도 있었고, 낭만도 있었읍니다. 의지도 있었고 뜻도 있었읍니다. 사랑도 있었고 땀도 있었읍니다. 기대도 있었고 성취도 있었읍니다. 물론 잠 안오는 밤도 있었읍니다. 그것은 울분과 모욕 때문이었읍니다. 아니 기다림 때문이었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기다림 때문이었읍니다. 내일을 영접하기 위한 기다림 때문이었읍니다.

* *

새해가 동터 옵니다. 그 내일이 밝아옵니다. 그 기다리던 새해를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새해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새해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그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내자 지금까지 살아온방식대로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느낌이 나에게 있읍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고내 양심을 짓누르는 그 무엇이 있읍니까? 우리가 새해엔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982년의 새아침이 밝아왔읍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1년 52주, 365일8760, 52만 5600분, 3천 153만 6000초를 어떻게 살겠읍니까? 저는 세가지 말씀을함께 나누고저 합니다.

(1) 시간을 아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권면했읍니다. 삶이란 결국 시간과의 대결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보람있게 쓰느냐, 못쓰느냐에 따라 우리의삶이 결정됩니다. 새해에는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살고, 매시간을 최선으로 살며, 매순간을 진실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언제나 새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편기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2) 책임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안다는데 있읍니다. 인간에게서 이 책임을 뽑아버리면 동물적인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책임적인 인간으로 산다는 말은 곧 「인간답게 산다」는 말과같은 뜻입니다. 그리고「인간답다」는 말은 자유를 지닌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회화를 만드실때자유를 지닌 존재로 만드셨읍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와 따먹지 않을 자유를 가졌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남용하고, 그릇된 것을 택함으로 스스로 무책임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이로 인해 인간사회에는 무책임한 행동, 무책임한 사건들이 횡행하게 되었고, 이런 무책임한 삶은 인간사회를 온갖 비극이 뒤끓는 폭력사회, 어두움의 사회, 윤리와 도덕이 땅에떨어진 동물사회로 바꾸어놓았읍니다.

이 무책임한 사회를 구속하고, 이 무책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한 책임적인 인간 으로 살게 하셨읍니다. 그로 하여금 모든 인간의 죄를 홀로 담당케 하셨읍니다. 그것은 인간들을 무책임한 삶에서책임적인 삶으로 회복시켜주고자함이었읍니다.

새해에는 좀더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읍니다.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사회는 책임적인 삶, 책임적인 인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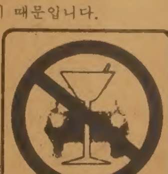
(3) 새해에는 「나눠가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인간은 이세상에서 홀로 살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고 남과 더불어 일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읍니다.

이러한 인간구조 속에서 위대하게 살고 보람되게살며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나눠가지는 삶을 바로 터득하는 일입니다. 기쁨을 나눠가질때 그 기쁨은 몇배로 늘어납니다. 슬픔을 나눠가질 때 그 슬픔은 몇배로 줄어듭니다.

소인과 대인의 차이는백지 한장의 차이입니다. 위인과 졸장부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과 위인은 이「나눠가지는 삶」을 일찍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살고, 책임적인 삶을 다하며,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삶을 배워야겠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사람」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26일 저녁에는 동우회, 호남향우회등 8개 교민단체의 망년회가 있었다. 호남향우회(왼쪽)와 동우회의 파티광경.

다망한 세모·8곳서 파티

호남향우회·동우회등 망년회 만발

연말이 가까운 지난주말 26일에는 토론토 교민단체들중 호남향우회, 동우회를 비롯 배재, 선린, 서울공고, 보성, 경기, 사대부고의6개 고교동창회등 8군데서 각종 연말파티가 열렸다.

공교롭게도 4개 단체에 전부 초대를 받은 교민 K씨는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동분서주했다"고 즐거운 비명을 올렸다.

이날 저녁 7시부터 트라엠프세라톤호텔에서 열린호남향우회 망년파티에는200여 향우들이 몰려 81년의 마지막 회포를 풀었다.

◇원영신 동우회장

호남향우회 파티 는 박주삼회장의 임기가 끝나신임회장에 만장일치로 장영대씨를 추대했다.

이보다 한시간 늦게 8시부터 스카이 라인 호텔에서 열린 동우회 연말파티에도 200여 회원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원영신회장의 금년도 사업결산등 보고후, 허승락 외환은행장의 P.R비슷한 초대연설을 들었다.

최행장은 호남향우회에도 초대받아 식사도 마치지 못한채 뛰어 다녀야 했다.

이병문씨의 1,500달러를 포함, 이날 동우 회원들이 걷은 동우회기금은 4,700달러로 동우회는 지금까지 목표액 2만5천달러중 2만달러를 돌파했다.

◇장영대 신임 호남향우회장

토론토 교민사회에서, 규모가 큰 이상 두 단체에 소속돼 있는 장순채·장영채씨등 교민들과 이병권 체육회장, 영사관 직원들은 신문사 보도진과 같이 동분서주해야 했다.

27일 아침 8시까지 위니펙행 비행기를 타야 했던 위니펙재봉사위문단일행전원은 거의 1~2개 단체 파티에 참석, 잠도 제대로못자고 성급히 공항으로 달려야 했다.

씨알 학교 개강
학생모집 뻐스운행

씨알한국인학교(교장 유회자)는 3주간의 크리스마스방학을 마치고 오는 9일 개강한다.

오는 봄학기 등록·신청학생들은 여정자선생(441-2986)에게 연락하면 된다.

씨알학교는 스카보로 지역과 서부지역에 두대의뻐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시사가학교 개강
8학년반도 신설

미시사가 한글학교는 82년 봄학기부터 8학년반 을 신설 학생을 추가로 모집한다.

오는 9일부터 6월19일까지 계속될 봄학기에는 한글, 음악, 미술, 영어의네 과목이 강의된다.

8학년반의 3월13일 까지 수업료는 13달러이다.

연락처는 문가자 교장선생(279-6010)에게 하면 된다.

낙수 위니펙 봉제사 위문공연

◎위문공연단일행을 맞은 위니펙한인회 간부들은 걱정이 태산같았다. 봉제사 아가씨들이 자부심이 대단해서 "우리가 왜 위문을받느냐?"고 항의, 100 여명이 모이기도 힘들것 으로 우려한것.

위문단 일행은 마침 일요일을 맞아 예배를 보고있던 두 교회를 방문, "토론토교민들을 상대로 연예인 공연을 가져도 교포위문공연이라고 한다"고 설명하며 오해 없기를 당부하자 이날밤 공연장에 위니펙 교민사상 최대인 약 2백명이 몰려 「화끈한」열정의 7시간을 갖게된 것이다.

아가씨들은 자기들의 이민초기 정착과정의 생활을 본보가 지나치게 생생하게 묘사한 것에도 어느 정도 불만을 가졌었다.

◎마니토바 한인교회를 찾은 동우회 이사장 고광남씨와 전이사장 박광철씨는 60년대 서독 광부생활과10년전 이민생활의 고된점을 들려 주면서 "아가씨들 이여! 재봉사란 직업에 긍지를 가지라"고 독려했다. "재봉사란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곳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허송세월 한다"고 의미심장한 충고를 했다.

◎한인교회의 이영서 목사는 "재봉사아가씨들도 이제 어느정도 생활 안정을 가져 줄처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하지는 않지만토론토총각들의 구애공세에는 흔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될 수 있으면 결혼하고도 위니펙에 같이 살았다면 한다고 이목사는덧붙였다.

◎토론토등지로 떠난 선배 봉제사들은 동료 또는 후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물가고, 아파트 임대료 등 때문에 저축도 안되고 여러가지로 불편하다"고 충고, 위니펙의 봉제사들은현지안주경향이 짙다.

◎3명의 아가씨가 함께사는 토론토·스트릿의 2베드룸 아파트의 임대료는 월 230달러였다.

◎위니펙교민망년파티를겸한 위문공연 참석자의 디너값을 1인당 15달러. 위니펙 한인회가 정한 이 금액을 아끼려는 일부 아가씨들은 디너가 끝난후 무료입장했다. 어쨌든 그동안 정부관계자들이나 한인회 모임같은것이 있었으나 200여 교민이 모인것이 이번이 처음, 처음에 위문공연 자체에 반신반의하던 위니펙한인회 관계자들도 공연성과에 대만족을 표시했다.

◎80년11월부터 위니펙에 도착한 봉제사들은 모두약 280명, 이중 30여명이 토론토등지로 떠나 현재 남은 정확한 숫자는 249명. 아직 재봉사협회같은 정식모 임은 없으나 민정숙양이 대표자로서 자치활동 방안을 강구중이다.

◎복권추첨에서 신세계여행사제공, 위니펙↔토론토왕복항공표를 받은 김길순양은 아직 싱글이라 한장밖에못받았으나 실은 한국에서 약혼자가 오게됐다고, 어쨌든 신혼여행은 나이아가라로 가야겠다고 기대가 대단. (위니펙=유승민기자)

가까운 장래 통일 어렵다

정부는 우선 민주주의 강화해야

(서울 28일=연합) 대부분의 한국 젊은이들은 가까운 장래에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리라고 믿지 않으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민주주의 강화라고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정부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확립, 정의사회 구현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150명의 전국 각대학및 고교생을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57.2%가 조국통일의 가능성이 점점희박해 가고있다고 보고 21.2%는 통일이 아주 먼 장래에나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15.4%는 적어도 10년이내에 한반도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으며, 오직 5.1%만이 가까운 장래에 통일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같은 통일, 국제정세, 국가안보및 교육에 대한 한국젊은이들의 견해조사는 최근 통일원에 의해 행해졌다.

통일실현의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상(55%)이 통합을 원한 반면, 21.9%는 교환과 협력을선택했다.

그러나 한.미간 협력관계중진 방법에 대해서는응답자중 33.1%가 「발전을 위한 협력」을 들었으며30.8%는「선택적 협력」을 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조사학생의 63.2%가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3.2%는국가이익을 위해 서울 도쿄간의 쌍무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정세중 중요이슈가 무엇이냐는 질문에학생들은 대부분(77.7%) 「국가안보」를 우선적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20.7%), 「자유」(20.2%)를 들었다.

국가안보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수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37.8%가 「군사력 증강」을 지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제, 정치적민주화」(34.2%)및 「호의적 공산국가및 비동맹국 과의 관계개선」등을 꼽았다.

정부가 할일에 관해서는 36.5%가 「민주주의 강화」를 꼽은 반면 27.2%가「정의사회확립」을, 19.2%가「복지국가건설」을 들었다.

노년회 영어교실

1월5일 개강

토론토 소재 한국노년회(회장 정인기)는 지난 2일 동사무실에서 영어학교 종강식을 가지고, 협조가 큰 황대연씨를 영어학교장 으로 임명했다.

이날 합석한 노스욕교육위원회 감독관은 오는 1월 5일 하오 6시 개강때에는 초급반도 설치한다고 확약했다.

Grenoble Dr. 국민학교(돈밀, 과학관건너편)에서 실시하는 새해 영어교실에 남녀노소 많은 이들의 수강을 바란다고.

문의전화 : 755-8079

2천달러 회사 번복

이영현씨

"설날을 맞은 아가씨들에게 조그만 보탬이라도되고자 회사한다"면서 본사의 위니펙 봉제사 위문공연 기금으로 2천달러를 약정했던 영리무역 이영현사장(※한국일보 12월17일자)은 지난 24일 회사 취소를 본보에 통고한데 이어 30일에는 이를 방위성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24일낮 본사에 전화를 걸어 "일부 교민들의 압력 때문에 기증 발표를 취소한다고" 통고해 왔다가 성황리에 공연을 끝낸 위문단이 28일 토론토로 돌아온 2일후인 30일"2천달러를 방위성금조로 내겠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사업관계로현지에 위문가지는 못했으나 봉제사 아가씨들의 방위성금 262달러 갹출에 공감, 이 돈을 내는것"이라고 말했다.

본사는 현재 방위성금은 걷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한국책 음반 구입

욕웃도서관

욕웃(York wood) 도서관에 새로 아동용 한국도서 170권이 들어왔다. 유치원생부터 국민학교 3학년까지의 연령층이 읽기에 적당한 아동용도서로서 많은 교포어린이들의 애용이 기대된다.

현재 욕웃도서관은 한국장서 570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레코드판도 유행가, 가곡, 국악등 여러 방면에 걸쳐 160장이 있다. 이중 30장은 아동용이다.

한인회 파티

한인회(회장 : 박인순)는 1월2일(토) 하오 7시 부터 한인회관계 인사, 캐리반 위원회및 각 협회, 단체장을 초청 자축파티를 오리엔탈팔레스에서 가진다. 회비는 1인당 $12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저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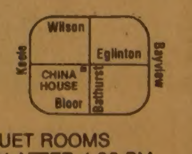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CATCH A RABBIT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화 세모의 밤 수놓은 우애와 멜로디의 향연 보

27일의 위니펙 봉제사 위문 · 공연

◇춤에는 나이가 없다. 53세의 박광철(토론토 교민)씨가 아가씨들과 춤을 즐기고 있고 또 장추신씨 부인의 멋진 포즈도 곁들여졌다.

◇열광적으로 드럼을 두들겨 대는 사나이는 권순근.

◇캐나다에서 최초로 가진 멋진파티에서 특별히 포즈를 취한 재봉사 4인방. 세련된 모습들로 토론토 위문단 총각들을 녹여냈다.

카메라

◇복권판매에서 얻은 수익금을 방위성금으로 전해달라고 윤방현 위문단장에 전달하는 재봉사대표 민정숙양

◇디스코에 열중한 위니펙, 토론토 양도시의 교민들. 홍이나 눈을 감은이도 있고 입을 예쁘게 벌린 아가씨도있다.

◇노래자랑에서 트로피를 탄 아가씨. 뒤에서 사회자 오세환씨가 익살을 떨고 있다.

◇「끝내준」 민요가수 박수연

◇한 아가씨의 고전무용에 도취, 맞장구를 치는 김현모씨(토론토 한인연합상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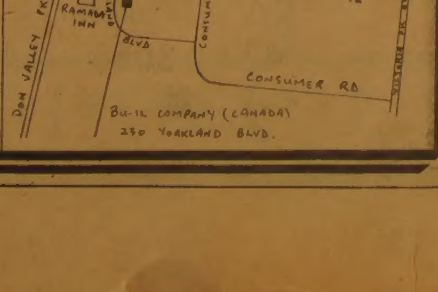
◇정열의 가수 박소영 양

◇노래자랑에 1번타자로 등장, "나혼자만이"를 부르는 황은숙양.

한국고유 가구점

— 고급품질의 고대 장농및 가구.
— 탁월한 End-tables, night-tables stereo/videp stand coffee-tables선반등.
— 많은 종류를 구비.
— 특별가격으로 봉사.

쇼우·룸
230 YORKLAND BLVD., WILLOWDALE
(at Sheppard E. and Don Valley Pkwy,
Opposite Ramada Inn)
BU-IL COMPANY (CANADA) TEL: 498-6953
오전10시~오후 7 시30분(월~금)
오전10시~오후 6 시 (토)



감 사 의 말 씀

81년도 동우회 연말잔치에 경품및 화환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귀하와 귀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그리고 하시는 사업에 번영을 하나님께 기원드리면서 우선 지상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I. 경품보내 주신분

1. 신세계여행사 : 대표 김창범—한국왕복 항공권(부부용)
2. 미도파백화점 : 대표 장추신—밍크목도리(부인용)
3. 전 동우회 이사장 : 박광철—TV
4. 동우회원 : 임철원—프로리다 왕복 항공권
5. 펜·아세아 : 대표 이창복—고급 밍크담요
6. 한국식품 : 대표 이창복—쌀50파운드, 25파운드
7. 블루어하드웨어 : 대표 권의섭—벽시계
8. 한국일보·토론토 : 사장 김명규—2년무료 구독권
9. M R. O'S TIE CITY : 오원균—넥타이및 침실용 가운
10. 실업인협회 : 회장 차선검—금일봉
11. 외환은행 토론토 지점 : 은행장—최승낙—금일봉
12. 한인태권도 : 회장 이경태
13. 캐네디 꽃집 : 대표 김용일
14. 한인회 : 회장 박인순
15. 아리랑 하우스 : 대표 정순채
16. 호남향우회 : 회장 박주산
17. 손영수 태권도장 : 관장 손영수
18. 전 동우회장 : 정호진
19. 동우회원(갈가리) : 심태하
20. 동우회원 : 남홍우
21. 모악회 : 회장 박명원
22. 대한체육회 : 회장 이병권
23. 사진협회 : 회장 이인대
24. 은하보석상 : 대표 김용선
25. 블루어 안경상사 : 대표 구천모
26. 코리언 저널 : 사장 유영린
27. 칠성인쇄소 : 사장 이익용
28. 토론토총영사관 : 총영사 이상훈
29. 외환은행 토론토 지점 : 은행장 최승낙

II. 화환보내주신분(무순)

1. 신세계 여행사 : 대표 김창범
2. 아이스하키 연맹 중동부 : 단장 고성호
3. 실업인 협회 : 회장 차선검
4. 초대 동우회장(뱅쿠버) : 박중훈
5. 민중신문사 : 사장 정철기

토론토동우회 이사임원 일동드림

謹賀新年

IMPERIAL LIFE 김 홍 량 270-1158(R) 482-0166(B)	**손 명 수 도 장** 손 명 수 2188 BLOOR ST. W. 763-1155	**마스터오토·바디** 자동차수리 전 기 덕 95 PORTLAND ST. 255-2111(B) 231-2822(R)	**한 인 신 용 조 합** 이사장:한 상 훈 BLOOR ST. W. 2nd fl. 533-9387	**가나안카텐·카바** 유 원 덕 252-4857
동 궁 식 당 곽 창 수 1416 VICTORIA PARK AV.	**완인태권무도회** 이 현 우 도장 2281 YONGE ST.TOR. 483-4002	**제 일 여 행 사** 유 지 원 621 BLOOR ST. W. 535-2377	**동 양 한 약 상 사** 함 병 섭 537-6685	**서 울 여 행 사** 최 동 주 631A BLOOR ST. W. TOR. 535-6004
서 울 하 우 스 김 신 우 615 BLOOR ST. W. TOR. 532-0602	**완인태권무도회** 이 경 태 도장 1865 LAWRENCE AVE. E. 759-2500	**천 우 여 행 사** 김 현 두 720 SPADINA AVE. 1층 928-3335	**한 인 연 합 상 사** 26-27 RANGEMORE RD. 251-6578	**비둘기식자인쇄** 윤 종 대 87 APACHE TRAIL WILLOW. 493-8894
베커프랜챠이즈 경영인협회 임 원 일 동 755-3632	**A·E·LEPAGE부동산** 우 덕 이 1174 ALBION RD. 851-4717	**선 · 라 이 프** 백 용 빈 497-3800	**스카이웨이·사무용기계** 김 인 환 215 Carlingview Dr. #109 Rexdale, 675-1295	**트로피, 스크린 프린팅** 김 국 일 247-8870
무 역 인 협 회 회 원 일 동 5420 MAINGATE DR. MISSI. 624-0511	**문 인 협 회** 회 장:박 충 도 481-3677	**조규혁종합보험** 조 규 혁 250THE EAST MALL. 233-6236	**PRUDENTIAL** DISTRIBUTORS 도 매 상 1377 DUFFERIN ST. 536-1131	**고 려 인 삼 센 타** 대 표:최 수 평 210 SPADINA AVE. #111 862-1263
아 세 아 한 약 방 조 지 섭 530-0522	**이 대 환 부 동 산** 607 BLOOR ST. W. (B) 535-1251	**종 합 보 험 대 리 점** **부 동 산** 김 종 조 651A BLOOR ST. W. 535-7200	**다 우 스 꽃 집** 대 표:이 동 환 464 DAWES RD. 751-5851	**토론토코리안YMCA** 총 무:김 창 열 15 ROBINA AVE. 536-1166
이 영 일 치 과 30 HUMBER TOWN CENTRE SUIT 9 Islington 233-9301	**Zap SUREKILLER** 바퀴벌레약 회사 대 표:임 태 호 376 QUEEN ST. E. 368-9018	**캐나다·라이프** 강 학 수 390 BAY ST. STE 600 TOR. 868-0922	**케 네 디 꽃 집** 대 표:김 웅 일 2194 BLOOR ST. W. 762-1572	**돈 밀 약 국** 이 요 한 429-4117
이 억 치 과 121 WILLOWDALE AV. 224-0483	**서 울 식 품** 박 인 조 367 PITFIELD RD. 291-8317	**앵코 오토·바디** 자동차수리 송 창 섭 846 RICHMOND ST. W. 862-1433	**킴 스 미 용 실** 김 월 선 668 MANNING AVE. TOR. 532-7094	**ROYAL TRUST** 곽 석 용 752-3111
의 사 최 등 영 600 SHERBOURNE ST. #308 964-0471	**그린우드·선물센타** 대 표:이 정 준 각종GIFT·트로피전문 Shoppers World Albion Mall 741-1219	**불 광 사** 석 광 옥 223-9152	**PALMER'S AIRCON.** 김 봉 균 909 DANFORTH AVE. 746-3840, 1	**종 합 회 계 사 무 소** 최 태 권 533-7573
변 호 사 MR. FINKELSTEIN & BIRKEN 199 RICHMOND ST.W.TOR. 977-1897	**아카데미 TV & 스테레오** 동부대표:김 정 운 서부대표:전 광 재 255 MORNINGSIDE AVE. 282-2820 3467 WESTON RD. 745-5555	**L & K AUTO BODY** 자동차수리 오 세 호 346 MUNSTER AVE. 231-6951	**DOMINION SMALL WARES LTD.** 사 장:SOL DENNIS 920 CALEDONIA RD. 789-7214	**TORONTO RETAILERS INVENTORY** **LAKESHORE MILK STORE** 대 표:오 병 권 259-5822 255-8301

서로 믿고 서로 도와 교포업체 키웁시다

謹賀新年

토론토한국총영사관 총영사 이상훈 외 직원일동 598-4608	천주교회 신부:고종옥 863-0415	제7안식일교회 목사:박형종 630-4284	재캐나다 한인실업인협회 회장:차선겸 752-7771	인권옹호위원회 각종인권문제상담 위원장:윤호영 300 BLOOR ST. W. TOR. 922-1299
가나안교회 목사:이정준 244-2301	딕시한인장로교회 목사:차주성 279-4356 279-6388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519) 579-1819	동우회 원영신 및 회원일동 755-0721	순복음교회 목사:이필주 881-7162
갈보리교회 목사:안병한 755-7979	런던제일교회 목사:장회선 439-6331 686-6302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223-1914	삼미떡집 전동림 531-7556	성산교회 목사:계화삼 977-5202
고신장로교회 목사:최사철 241-4546	성도교회 목사:김용진, 정춘수 745-7370	한인장로교회 목사:박희민 535-6864 532-2121	인벤토리 호세환 536-6250	에덴침례교회 목사:정태진 665-2866
벧엘교회 목사:최상봉 496-2967	새예루살렘교회 목사:김승환 429-1430 429-2685	킴스카메라 김춘탁 619 BLOOR ST. W. 534-1085	집수리,건축 심태식 669-5784	중앙장로교회 목사:정관일 249-5461
순복음카나다교회 목사:조이식 745-3884 743-4813	대한수도원 조권사 698-5363	블로아·하드웨어 대표:변의섭 608 BLOOR ST. W. TOR. 531-6183	센츄리냉동 이인식, 원종성 221-5441	베다니성결교회 목사:김요한 248-9709
새한장로교회 목사:김상호 633-3132	오순절장로교회 목사:장세택 762-1495	LEE'S PRINTING 이정준 2157A WESTON RD. 244-2301	브랜돈스포츠주식회사 이건영 598-3732	임마누엘교회 목사:조창환 488-4141
영락교회 목사:김재광 423-9880	토론토한인성서신학원 원장:박희민 535-6864 532-2121	金承澤 20 WEST LODGE AVE. 534-4823	ROGERS GARAGE 변달원 651-9324	60 MINUTE PHOTO LAB. 김기석 274-4323
대한교회 목사:강근환 741-5411	국제종교문제 연구소 캐나다지부	럭키 DRAPERY 최원보 625-0698	맹인복지협회 온타리오지부 원종필	제일장로교회 목사:김용출 755-1528
침례교회 목사:홍신웅 531-7604	미주한인장로회 캐나다노회 노회장:김재광 서기:장세택	SUN — LIFE 김신명 922-3111	서머나감리교회 목사:박준하, 김옥희 751-3611, 752-9860	SUPER X 조남오 368-2746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일보 직원일동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신년단편>

합 화 (合火) ①

이 태 준

◇이태준씨

옆에서는 오랜만에 친구들이 내기 윷판을 벌여 놓고 떠들썩하게 놀고 있는데도 한달식 노인은 벼난로 곁에 유두커니 앉아 훨훨 타오르는 불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이! 거 청승맞게 혼자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만 말고, 이리와서 한판 끼어봐?」

그와는 동향인 곽노인이 한달식 노인의 낌새를 알아차리고 윷판에 동석하기를 요구해도 한달식노인의 귀에는 불이 타들어 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엊그제같은 옛날 넓다린 들판을 가운데 두고, 의좋게 마주 보고 앉은 앞산과 뒷산의 기슭에 오붓하게 자리잡은 광대골과 도우리의 두 마을은 정초 이맘때가 되면 으레 그해의 동네 운을 걸어놓고 불싸움을 시작했다.

원래 인심이 후하고 순한 시골사람들은 비록 동네가 다를지라도 이웃처럼 사이좋게 지냈는데, 불싸움이 시작되며는 인정 사정이 없는 적으로 변했다.

우선 초이튿날부터 보름까지 2주동안 계속되는 불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불싸움에 참가할 양쪽 동네의 청년과 처녀들은 꽹과리를 두들기며, 동네를 한바퀴 돈 후 공회당 마당에 모여 전야제를 가졌는데 이때에 동네사람들은 다투어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꼭 승리를 거두어 그해에는 동네에 좋은 운이 오도록 하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불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불꽃이 크고 작은 것과, 꺼진횟수를 가지고 승패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불꽃이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애매한 일이어서 대부분은꺼진 횟수로써 승자와 패자를 판가름하였는데 그것도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는일이란 큰 비바람이 아니고는 거의 없어서 양쪽을 서로 습격해서 상대방의 불을 꺼버리는 사례가 빈번이 일어났다.

불싸움이 계속되는 2주동안은 완전히 양쪽 동네가 구별되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무서운 경쟁을 하다가도 일단 승패가 결정되고, 불싸움이 끝나면 양쪽 동네의 불밭으로부터불씨를 날려다 서로 중간 정도의 지점에 불발을 만들고, 적과 적이 서로 어울려 마지막날을 질탕하게노는 것으로 불싸움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날의 행사를 그들은 「합화(合火)」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말의 뜻 자체보다는 그동안 적으로대하던 감정을 모두 풀어버리고, 함께 어울려 논다는 의미로 일컬어지는 말이었다.

도우리에 사는 한달식은 광대골과의 불싸움에 남다르게 열성이었다. 기골이 장대하고, 발이 빠른 그는 불싸움이 시작되면 야음을 틈타서 적의 불을 기습하는 특공대로 눈부신 활약을 했다. 특공대란 성공을 하면 더할 수 없이 통쾌하고, 동네처녀들의 인기와 갈채를 아낌없이 받는 부러운 역할이었지만 적에게 잡히는 날이면 몰매를틀맞는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것이기도 했다.

* *

「자! 이리 바치세요, 그 돈은 이 어르신네 것이니께, 그런데 돈을 이렇게많이 따서 무엇한담, 기생집도 없는 나라에서…」

「이따! 돈 싫어하는 여자 있간되? 나것 내것없는 판국에 아무거나 하나 붙들러무나?」

「외눈, 언청이, 곰배팔이가 아니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못생긴 송장을 받아주나.」

「저런 못된 놈, 아재비한테 하는 말버릇 좀 보소. 내가 자네 춘무장 어른 하고 맞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접주인 송영감과 무슨판만 벌였다고 하면 돈을 따는 들창코 최영감의 격의없는 농담에 구경하고 있던 영감들은 허리를 굽혀며 껄껄 웃었다.

* *

「한달식 노인이 이 북에 두고온 처를 처음 만난 것도 어느해던가, 한참 불싸움이 치열한 무렵이었다. 지난 밤에 광대골 특공대들의 야습으로 쑥밭이 되어버린 도우리 불밭을 복수하기 위하여 한달식은직접 위장작전을 지휘했다. 우선 힘깨나 쓰는 청년들을 골라 몸에 맞는 동네처녀들의 옷을 입혀 광대골의 밤참을 나르는 처녀들로 변장시켜 광대골의 청년들이 훤히 보는 앞에서 그들의 불밭을 물바다로만들어 버리자는 기발한 작전이었다.

그는 우선 작전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하여 밀자를 광대골로 보내 밤참나르는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고, 그보다 한발앞서 거사하기로 결정했다.

광대골과 두우리를 이어주는 훤한 신작로가 곧게 뻗었는데도 샛길로 돌아앉 동네에 잠입한 특공대는준비해온 양동이에 막걸리대신 얼음이 서그럭 거리는 연못물을 가득 채워 들고 조심스럽게 불발으로 향했다.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되 어울려지 않는 걸음 걸이와 어정쩡 양동이를 들고 가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가관이었다.

* *

「자아― 또르래 또르래 또르르 구르다 셋이 엎어지면 또 다를 도요, 귀우뚱 귀우뚱 엎어질려다 둘이남으면 개불알 개고, 대르르 대르르 대굴 대굴 재주넘다 하나가 노라지면 세걸음 걸이다. 도, 개, 걸도 아니러거든 강강수월래 달밝은 밤에 함빡 웃는 박꽃같이 눈이 부신 이화같이 벌렁 누워 윷이든지, 만경창파 깊은 바다에 둥둥 떠나는 고래등같이 홀짝 엎어져 모가 되든지…」

전라도에서 왔다는 입담좋은 김노인이 한바탕 사설을 읊어대며 윷을 높이 뿌려 던지자 개가 나왔다.

「이런 제길헐, 사설값도 안되는 개불알 개다.」

「원래 빈 수레가 소리는 시끄러운 법이지.」

여기저기서 놀려대는 소리에 기가 죽은 김노인은 몇잔 술에 벌그렇게 달아오른 눈자위를 손등으로멋적게 문지르며,

이러다가는 며느리 눈치보며 아들놈한테 몇푼 타온 용돈을 홀랑 털리겠는데‥」하고 투덜거렸다.

* *

적진에서 눈치채지 못할 만큼한 거리를 두고 한달식은 다시 한번 행동대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적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부터는 또아리를 바쳐 물동이를 이고 접근한다. 걸음걸이는 될 수 있으면 여자를 흉내내고, 절대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재수 없게 도중에 발각되면 분산해서 공격을한다.」

주의를 끝낸 한달식은물동이를 이고 앞장을 섰다. 서투른 머리짐에 숨이 가쁘고, 조마조마해서 다리가 후들 후들 떨렸다. 다행히 적진에서는 눈치를채지 못하고 있는 것같았다. 저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지난밤의 습격을 이야기하며, 희희덕거리느라고 망을 보는 청년마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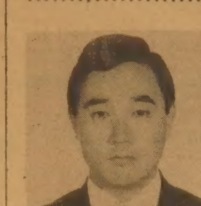
적진을 불과 몇십보 앞두고 한달식의 뒤를 바싹 뒤따르던 김칠이 녀석이갑자기 재채기를 하는 소리에 희희덕거리던 녀석들이 한달식의 패가 접근해오고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한달식은 반사적으로 멈칫, 공격대원들을 세우고 여차하면 분산명령을 내릴 각오를 했다.

「워라, 어제밤에 수고했다고 오늘은 동네처녀들이 머리라도 잘랐다냐? 웬놈의 술동이를 저렇게 많이 이고 온다냐?」

(계 속)

제5계절 이민작가의 사명

박 충 도(문협회장)



◇박충도 씨

정든 고국을 멀리 뒤로하고, 아는 사람 하나없고, 낯선 이곳 캐나다에 이민온 우리들의 일상생활은외로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조국에서 경험해 보지도못한 그 어떤 고독감에 사로잡혀 생활하고 있다.

이곳의 우리 교포들은 내일의 의식주를 해결하지못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서로 새로 이식(移植)한 나무가 새흙에 적응하고, 새로운 뿌리를 확고히 내릴 때까지 갖는 그러한 불안인 것이다.

그리고 교포들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 이민자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으나, 언어의 장벽과 경험부족으로 고국에서 가졌던 직위나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을 하게 되어 바라던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이처럼 배반된 기대는좌절감과 욕구불만등으로 나타나,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이곳에 와있는 노인들은 캐나다사회와는 말할 것도 없고, 귀여운 손자 손녀와도 언어의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두절된채 알아들을 수도 없는 TV를 벗삼아 그날그날을 생활하고 있으며, 음식이나 풍습에 익숙하지 못하여 여러가지 미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요인은 이곳 우리 교민들의 정신생활에 많은 영향을미치고 있어 대부분이 노이로제(정신장애 또는 신경증세)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문인들은이러한 교민들의 노이로제증상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절박한 현실로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갈등 욕구불만, 초조감및 열등의식등 여러가지 요인에서 오는 노이로제 반응을 의식적이든무의식적이든 작품에 쏟아버림으로써 이를 해소하려는 경향은 없는지, 있다면 이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이로제란 초조, 불안, 공포및 강박등 각종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중추신경계통의 기능장애를 말하나, 이는 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심하게 되면 정신병(Psychoses)으로 발전하게 된다. 노이로제 환자는 보통 마음의 평온, 행복, 만족등에 관한 보편적인감정을 상실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노이로제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기분이나 행동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수가 많으며, 수시로 노이로제 반응을 나타내는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심리상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는 문인들은 이들의 노이로제증세를 완화해 주고, 건전한 정신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 이들의 노이로제 증세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아야 하겠다.

이곳에서 씌어진 글 가운데 자가의 노이로제 반응을 작품속에 표현시킨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은 교포들의 건전한 정서생활을 파괴할뿐 아니라, 고독과 좌절감을 더욱 고취시키는 결과를가져온다. 또한 현실에 대한 지나친 불만만을 묘사한글을 교포들에게 읽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건전한 정신생활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욕구불만이나 열등의식을 작품에표현시킴으로써 자기의 노이로제 증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이곳 교민들의 정서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기만이 이 세상의 부조리, 불의, 가난,등을 몰아내고, 정의롭고, 풍요한 지상의 낙원을 세울 수 있고, 그것이 자기의 원대한 사명감인양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혁명적, 역사적인 거대한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찾아온 구세주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사람은 참경원에 들어가 청룡도를 훔쳐, 그 칼로 사슴의 목을 쳐 그 사슴의머리를 다려 먹고, 남북통일을 하겠다고 청룡도를 높이 쳐들고 휴전선을 향해 가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20수년전의 어느 MEGA-LOMANIAC의 이야기를 연상시키게 한다.

우리는 이미 영웅이나혁명가가 활보하던 시대나, 또한 하나의 정치이념만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후기 산업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이민작가로서의 자세를 충분히 인식하고, 시대와 이곳 현실에 입각한 우리들의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겠다. 우리는 교민 독자들에게육체적 상처를 입힐 수 없는것처럼 교민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할 하등의 특권도 필요성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롭고 불안하고 갈등이 심한 우리들의 현실적 감정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따스히 감싸 주면서교민독자와 더불어 호흡을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 531-0277

대표 나옥녀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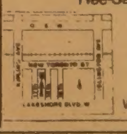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정기이사회소집공고

회칙 제15조 1항에 의거 8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공고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1월7일 목요일 오후6시

장 소 : Inn on the Park Hotel 1100 Eglinton Ave. East. (Eglinton×Leslie)

안 건 : 1. 이사장 선출및 선거관리 위원장, 감사위원장 선출
2. 집행부 조직인준
3.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4. 기타사항

1981년 12월21일

온타리오한인 실업인협회 이 사 회

82년 봄학기

씨알학교 학생모집 안내

기 간 : 1982년1월9일부터 6월19일까지(20주간)

시 간 :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NDALE AVE.

자 격 : 유치반부터 8학년까지

프로그램 : 10시부터 12시30분까지—한국어, 합창
1시부터 3시까지—영어교실, 예능교실(피아노·바이올린, 미술, 무용, 태권도)

수 업 료 : 학생1명당— $100(등록비 $10)
한국어, 합창은 무료, 예능과 영어교실은 한 학생이 두과목씩 택할 수 있음.

버 스 비 : 학생1명— $80(등록비 $10)
동쪽—EGLINTON, DANFORTH, KINGSTON, GERRALD지역
서쪽—REXDALE, LAKESHORE, HWY27, 427, WILSON DUFFERIN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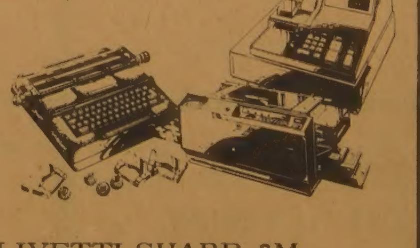
※현재 버스2대가 운행되고 있음.

신청전화 : 여 정 자 선생님 441-2986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새해엔 對話政治 活性化

政黨間 활발한 접촉예상

주요問題 代表회담서 절충

"주어진與件서 各黨 異見조정을" 李民正대표

"一方通告式은 一方的論理 유발" 柳民韓총재

"極限對立 탈피해야 和合가져와" 金국민총재

◇敎皇과 폴란드 어린이 24일 바티칸궁에서 폴란드 순례자들을 접견하는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폴란드 고유옷을 입은 어린이를 안아주고있다. 【바티칸시티AP=本社】

日 市場개방않으면 美서 强力대항조치

바티칸시티25日AP

"크리스머스는 希望의상징"

敎皇 深夜미사…故國위한 촛불點火

各黨、稅制 공동 改編 작업

稅法모순 是正·體系단순화 검토

民正 民韓黨등 주요정당들은 현행 稅制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내년부터 공동으로 稅制改編작업을 벌이기로했다.

李鍾贊국회운영위원장은25일『현행 租稅體系를 검토한결과 복잡한 租稅제도를 정리하여 단순화시킬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고말하고『새해초부터 民正黨의 金鍾□의원과 民韓黨의 朴完奎의원등 稅法에 밝은 財務委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稅制개편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3政務장관실 職員 15명 總務處로 흡수

豫算사업 效果·優先順位 「零의基準」서 전면再點檢

내년부터 낭비要因 除去·效率性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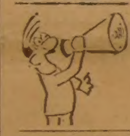
한국産생사 再輸入

日、國內價格올라

年末맞아 호경기 시장등 賣出늘어

北傀 군사고문단 니카라과軍 支援

通貨관리方法 바꿔 간접規制 방식으로



社會漫評

地平線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 울
여 행 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최 동 주

근하
신년

새해에도 교민여러
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오며,
교민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일은행 토론토사무소
소장 한 철 환
ROYAL BANK PLAZA SOUTH TOWER
SUITE 3040 P. O. BOX94 M5J 2J2
(416) 865-0456
TELEX 65-23915

謹 賀 新 年

"대망의 1982년을 맞아
여러분께 인사올립니다."

We wish to extend seasons
greeting to all
Thanks for your past support
A prosperous 1982
Compliment of Leela Sales

LEELA SALES LTD.
2410 MIDAND AVE. #7 AGINCOURT, 298-7576

謹賀 新年

지난 한해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OK AUTO BODY
김 희 삼
(B) 251-9889
(R) 242-4551

폴란드軍政은 自由勞組 뿌리 뽑으려

西方、對蘇강경路線
佛·EEC·유럽共黨등 신랄히 批判

【뉴욕·파리24日AP·UPI=聯】 로널드·레이건 미 대통령이 폴란드사태에 대한 소련의 책임을 비난함과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정부가 소련의 폴란드개입을 비난하고 EC(歐共市)10개국이 폴란드의 인권위반을 우려한데 이어 서방측은 24일 폴란드위기의 배후세력인 소련에 대한 강경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23일밤 송연설을 통해 소련은 폴란드의 노동자억압사태에 대한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美·蘇관계의 악화가능성을 경고한데 이어 피에르·모르와 프랑스수상은 23일밤 국회연설에서 소련이 폴란드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르와수상은 소련이 폴란드 인권의 모든일에 간섭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소련의 폴란드개입은 「하나의 사실」이라고 공격했다.

이와함께 브뤼셀의 EEC는 『폴란드에서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위반』사태에 대해 바르샤바에 커다란우려를 표명했다.

서방국정부들의 대소강경화와 보조를 같이하여 프랑스공산당과 이탈리아및 스페인의 공산당등이 강경한 논조로 폴란드의 군사통치사태를 비난했다.

◇야루젤스키의 軍部隊시찰 폴란드 共產黨제1서기겸 수상이며 救國軍事평의회議長인 보이체흐·야루젤스키 장군㊨이 24일 바르샤바의 군부대를 시찰중 군인들과 만나고있다. 이 사진은 바르샤바 TV방송 화면을 잡은것이다. 【바르샤바24日UPI=聯】

共產勞組 협력할 새指導部엔 勞組활동 허용

【빈24日AP·聯=聯】 폴란드계엄당국은 폴란드자유노조가 공산당관리하의 노조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갖추면 노조활동을 재개토록 허용할는지 모른다고 군검열을거친 바르샤바발보도가 24일 전했다.

바르샤바주재 AP통신특파원 토머스·네터기자가 폴란드군부언론검열관의 검열을 거쳐 송고한 이기사는 바르샤바주재 서방소식통들을 인용, 그같이 보도했다.

폴란드외부의 서방관측통들은 자유노조가 재구성될경우 이새자유노조는 자유로운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과거의 자유노조와는 거의 아무런 사점도 갖지 못할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AP통신의 이같은 보도와 때를 같이하여 바르샤바방송은 이날 당제1서기이자 수상겸 국방상인 보이체흐·야루젤스키가 이끄는 폴란드구국군사평의회가 23일밤 회의를 열고 폴란드국내사태에 관해 토의한 끝에 군부·사회·정치및 경제등 3개분야 관장부서의 업무를 확정지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채 폴란드구국군사평의회가 폴란드사태의 국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토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방에 입수된 다른 보도들은 폴란드구국군사평의회가 거의 대부분의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어 폴란드 공산당은 기능정지상태에 빠져있다고 전하면서 소련은 현재의 폴란드공산당을 탐탁지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공산당이 재구성되려면 아마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軍政、御用노조화 추진

첼로演奏者 바르지크孃 亡命요청

폴란드서 살수없다

【뉴헤이븐(코네티컷州)24日UPI=聯】 폴란드의 저명한 첼로연주자인 세시리아·바르지크양이 24일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레지아의 퇴직탄광부의 딸인 바르지크양은 『나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신봉, 민주주의가 전혀없는 폴란드에 살수 없다』고 망명이유를 밝히면서 『나는 자유노조운동에 희망을 걸어왔으며 또한 이를위한 많은 후원연주회도 열어왔고, 앞으로도 폴란드국민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연주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바웬사 斷食투쟁중… 死亡 가능성

건강 크게惡化

【워싱턴24日聯=聯】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지난19일이래 단식투쟁중이며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단식을 계속할경우 사망할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우려된다고 한 폴란드系 미국인 단체가 24일 밝혔다.

「폴란드系미국인회의」의 한·노바크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로이터통신 기자에게 이같이말하고 이같은 소식을 바르샤바의 한軍본부에서 바웬사를 봤다는 폴란드소식통들로부터 입수했다고밝혔다.

폴란드 선원5명 또 스웨덴에亡命

【스톡홀름24日AP=聯】 폴란드선원 5명이 24일 또다시 스웨덴에 정치망명을 요청했다고 스웨덴경찰이 이날 발표했다.

경찰 대변인은 폴란드에서 지난13일 계엄령이 선포된이래 스웨덴에 정치망명을 요청한 사람의 수는 선원43명과 일반인 4백여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軍事彈壓 종식돼야 헤이그 CBS會見

【워싱턴24日AP·UPI=聯】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은 24일 계엄령을 통한 군사적탄압으로 폴란드국민들의 저항을 분쇄할수는 없을것이라고 말하고 東西긴장의 고조는 소련과 폴란드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自由勞組 支持者 美亡命 루라즈大使

【東京24日聯=聯】 서방에정치적망명을 요청, 24일 미국으로 떠난 지스와프·루라즈 일본주재 폴란드대사는 폴란드자유노조의 공공연한 지지자였다고 한 일본노조지도자가 밝혔다.

"탱크밀고 가야 介入인가"

波사태로 美의 對外정책試鍊예고

집중외신

폴란드 사태 2주째, 사태를 좇는 美國의 압록은 다양하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칼럼과 社說을통해 미국이 느끼는 폴란드 사태와 해결 전망을 살펴본다.

百家爭鳴…波사태를보는美言論

제임즈·레스턴은 15일자 뉴욕·타임즈에 『새로운 고립주의자들』이라고 題한 칼럼을 통해 폴란드 사태가 美國對外政策에 큰시련을 안겨줄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련과 폴란드정부는 폴란드자유화운동을 무력탄압할 경우 미국의 반발에 직면할것을 사전에 잘알고 있으면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워싱턴의 강력한 反 …

… 못했다면서 서방측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항의없이는 자유노조와 폴란드언론지도자들은 침묵하고 분쇄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紙는 미국이 유럽에 개입하는것을 재고하고 외교정책주안점을 태평양으로 돌려야 한다는 맨스필드의 사설을 실었다. …

美·西方서 「非개입 論理」로 自己기만

蘇선 傀儡政權내세워 폴란드국민彈壓

태풍의 前兆가 이미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심사숙고해야할때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광란에 빠지고 고립될것이다. 폴란드 사태는 …

반응은 결국 폴란드사태를 놓고 자기를 안심시키려는 알리바이만을 만들려하는것이다. 소련은 이미 30개사단을 폴란드 국경에 배치하고 …

이러한 조짐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美칼럼니스트 조지·윌은 워싱턴·포스트紙 19일자 「非폴란드의 非개입」이란 칼럼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각국이 폴란드사태를 앞에 놓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위한 말의 성찬만을 벌이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헤이그美국무장관이나 슈 … 있다. 서방은 소련의 탱크가 들어가는 것만을 「개입」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36년간 소련의 東歐圈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미국과 서방이 소련의 「비개입」이란 논리를 가지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동안 소련은 괴뢰정권을 내세워 폴란드국민을 탄압하고 東歐각 …

폴란드자유화운동의 특징이 명백해지고있다면서 다음과 같이썼다. 『자유노조를 중심으로한 폴란드 자유화운동은 대규모 민중운동이다. 상층개혁운동이었던 체코자유화와는 판이하다. 계엄후의 폴란드의 汎국민적저항이 잘 증명해주고있다.

그러나 서방국가는 체코때처럼 폴란드자유화탄압도 수 …

하고 나치독일에 협력한 피에르·라발과 같은 변절자이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안토니·루이스의 안목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이다. 西方측이 소련의 不介入을 주장하는 한 西方도 폴란드인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외견상으로 보아 폴란드사태는 군부를 앞세운전체주의 세력이 자유세력을 말살하려 들고있다는점에서 체코사태와 비슷하나 군부의 본격적탄압이 시작되면서부터 …

고나서 서방국가는 식료품원조·중지, 차관제공중지등과 같은 대응책을 논할수 있을것이다. 폴란드와 비교해서 사소한 문제에 과장된 수사는 발언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우리는 폴란드사태가 스스로 제길을 찾아갈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사설을 실었다.

워싱턴·포스트紙는 21일자에 「폴란드의 正統性」이란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의 논조는 正統性은 야루젤스키의 철권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아직도 협상이 가능한 教權및 自由勞組의 협조를 얻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루젤스키의 군대동원을 하나의 쿠데타로 보고있는이 사설은 야루젤스키는 政治的권위가 대변해주는 正統性을 결여하고있다. 그는 폴란드의 民族主義者로서의 면모도 잃었고 소련의 허수아비라는 면만 드러냈다. 그는 폴란드에서도 전반지않는 정신적·전체적지도자인 요제프·글렘프대주교및 바웬사와손잡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한다. 교회야말로 소련 영향하의 공산당 통치하에서 자유노조가 불러일으킨 민중의 民主化 불꽃을 꺼지지 않게 간직한 除燼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산토끼 소탕작전… 산토끼 소탕작전에 나선 美농부들 美아이다호州 몬테뷰의 농부들은 지난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있는 산토끼 소탕작전을 벌여 단번에 2만여마리를 때려잡았다. 하지만 뒤이어 시작된것은 동물애호가협회의 거센반발이었다. 【AP】

蘇에도 응징조치 警告

美의 波事態對處 "波國民탄압에 공동책임"

【워싱턴24日AP·UPI=聯】 폴란드정부를 응징하기위해 경제제재란 제한된 조처를 취하고나선 레이건미국 대통령은 소련도 폴란드국민을 탄압하는데 공동책임이 있다면서 응징조치를 당해야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23일밤 TV연설을통해 대소 보복은 당분간 보류했으면서도 폴란드의 탄압이 계속될 경우 미국은 『구체적인 정치·경제 조치들』을 취하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밤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전 기자들에게 배경설명을했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대소조치를 취하는것은 시간적문제라고 밝혔다. 이관리는 레이건 대통령이나 모스크바에 어떤조치가 취해질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外信안테나

◆美審計局에KGB첩자浸透

美의회의 감사기구인 심계국(GAO)에 최소한 3명의 KGB(소련국가안보위원회) 첩자가 침투, 매우 중요한 美국방비밀들을 빼내갔다고 미국의칼럼니스트 잭·앤더슨이 24일 주장했다. 【워싱턴=AP】

◆蘇레이건의經濟制裁비난

소련은 레이건美 대통령의 對폴란드경제제재조치를 『폴란드내정에대한 무례한 압력과 충격적인 관여』를 은폐하기위한 기도로취해진 행위라고 24일 비난하고 나섰다.

관영타스통신은 이날 워싱턴발기사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對폴란드경제제재조치에 대해 이같이비난했으나 소련이 폴란드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경우 소련에대해서도 유사한 제재조치를 취할것이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고는 일체언급하지 않았다. 【모스크바AP=聯】

海外토픽

手術없이 性轉換

★女육상선수 男性으로

육상선수였던 한 여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지않고도 저절로 남성으로 변했다.

자카르타의 메트데카(자유)지는 24일 60년대에 부참선수로 확약하다가 70년 한 남성과 결혼한바 있는 카르나양의 성기관이 점차적으로 변해 지난 9월18일 완전한 남성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카르나양은 이름을 바꾸고 지난 11월 한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녀(?)의 부모들은 카르나양이 원래 태어났을때는 남아였는데 24시간후에 여아로 다시 변해 상당히 놀랐지만 이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한편 카르나의 신부는 그들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하고있다고 강조했는데 의사들은 카르나의 자연성전환은 호르몬관계로 생긴것으로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논평. 【자카르타=AP】

白樺、過誤시인

★人民日報 편지내용소개

문화혁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苦戀』이라는 소설 때문에 중공당국의 비난대상이 됐던 소설가 白樺가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는 편지를 해방군보와 문학관보측에 보내왔다고 중공당기관지 人民日報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白樺가 이 편지에서 『해방군보가 지난봄 내작품을 비판했을때에는 저항감이 앞섰으나 그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성해본 결과 이 작품이 黨지도자들의 사회주의 노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부층의 잘못된 경향을 드러낸 대표적인 오류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됐다』고 자아비판한 것으로 전했다. 【北京=AP】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國共合作협상 이미 進行"

中共 廖承志 日紙회견

武力解放정책은 포기

【東京25日=聯】 중공의 廖承志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부위원장은 25일 보도된 日本산께이신문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대만과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력해방을 포기한다는 방침이 이미 당중앙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4년전 統一案내용 傳達

廖부위원장은 앞서 葉劍英全人代상무위원장이 대만에 『國共합작에 의한 대만조국복귀·평화통일』 제안내용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대만과 이미 접촉했다. 제의한 9개항목의 이른바 이미 4년전 대만측에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廖부위원장은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대만군대의 통수권은 그대로 대만에 속하며 ▲國號와 국기는 쌍방간의 합의에의해 결정할수 있다고 말했다.

廖은 통일가능성에 관해 시종 낙관적인 전망을 표시하면서 대만과 中共의 정치 신조、경제및 사회체제등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지만 통일을 하더라도 대만의 현상태를 유지하게되므로 통일의 장애가 되지않는다는 견해를 표시했다고 산께이신문은 보도했다.

붉은旅團 혐의자 셋逮捕

伊경찰、도지어將軍 납치관련

【로마24日UPI=聯】 나토남부유럽지상군통합사령부 행정참모차장 美육군준장 제임즈·도지어(50) 납치사건을 수사중인 이탈리아경찰은 23일밤 대대적인 수색작업끝에 밀라노에서 3명의 『붉은여단』 소속 혐의자를 체포했다고 24일 경찰소식통들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날 체포된 3명의 혐의자중 2명은 『붉은여단』의 핵심멤버로 작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파스쿠아·아우로라·베티(34)와 플라비오·아미코(26)라고 밝혔으나 현재 경찰본부에서 신문을 받고있는 다른 1명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약2천명의 이탈리아 경찰은 헬리콥터와 경찰견、무장차량을 동원、도지어장군이 억류돼있을 것으로 보이는 『붉은여단』의 은신처를 찾아내기 위해 北部이탈리아 지역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있다.

메아리

밝은 밤의 制約

올해 크리스머스·이브는 어느 해보다도 차분하고 조용했다는것이 크리스머스날 아침의 첫화제로 등장하였다. 시민들이 작년보다 더 차분해졌다는 증좌로 봐야 할것같다. 오히려 들떠서 공연히 싸다니고 여기저기 떼지어 몰려다니며 더러는 어울려 飮酒도 하고 하던것이 非正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면, 조용하고, 차분하게 크리스머스·이브를 지낸것이 겨우 「正常」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야 옳을것이다.

29일밤부터 서울시내 중심부는 가로등 2만3백50개가 모두 불을 켜 한결밝은 밤을 이루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正常」으로 되돌아 간것이라 하겠다. 내년부터는 시가지의 네온사인도 살아난다하니 밤거리는 한결 더밝고 화사해질것같다.

억눌려 있는것에서 한가지 한가지씩 해방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삶을 누르고 있는 제약에서 벗어날때의 희열—하나씩 제약을 제거해가면서 살아간다는것, 그것이 삶의 發展이기때문에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구치는것은 아닐까? 더구나 節約이라는 당연한 고통을 치른후, 이고통이 이제는 너나없이 체질화되다시피한후에 닥친 그런 혜택이고 보면 마음은 더 한층 흐뭇해 지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正常」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서울시내에는 2만개의 가로등을 더설치하여 照明度 30룩스까지 끌어올릴계획이다. 선진국의 가로조명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사정에 비추어본다면 이 또한 획기적인 發展으로 여겨져 더욱 흐뭇함이든다.

거리가 그정도만 밝아져도 거리가 어두워 발생했다는 交通事故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거리가 밝아졌다는것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훤한 가로등이 켜진 시가를 달릴때는 어떤 車든 下向燈이나 車幅燈정도만켜고 다니게 되어있다. 법규로써 강제하고 있다.

우리 불레에서도 재작년 9、10월을 「전조등 하향조정 단속기간」으로 정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일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1백m내의 물체가 차량의 전조등없이도 식별될때는 하향조정된 전조등이나 차폭등만으로 달리게 되어있고, 시가지에서는 상향전조등이 금지되어있다. 시외나 어두운길에서 상향등을 켜고 가다가도 맞은편에서 차가 나타나면 하향조정토록 되어있다. 운전자들의 조그마한 준수사항이고 또 에티켓이다. 밝은 밤거리에 꼭 加하고싶은 다른 制約이 문득 생각나서—.

謹賀新年

새해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일에
번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 : 532—1054

"不自由진술" 有罪증거 안돼
27개월에 殺人누명벗어

大法 "경찰立會한 檢事조서 못믿어"

안내양 殺害혐의의 觀光버스 運轉士

검사작성의 피의자조서라 하더라도 수사담당경찰이 입회했을경우는 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판례가나와 살인혐의로 기소됐던 한운전사가 2년3개월동안의 법정투쟁끝에 성탄절인 25일 살인범누명을 벗고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가 된 피고인은 자신이 몰던 관광버스의 안내양을 죽인 혐의로 기소됐던 전남順天市三山洞 趙元冀씨(38).

趙씨는 지난79년 10월9일 경기龍仁郡器興面新葛里 경부고속도로옆 신갈천에서 타살체로 발견된 차모양(당시19세)의 살해범으로 구속됐는데 당시 龍仁경찰서는 피살자가 순천관광소속 전남5바1205호 버스 안내양이었음을 밝혀내고 운전사였던 趙씨를 연행, 고문끝에 육체관계때문에 다투다 주먹으로 때려 살해했다는 억지 자백을받아냈다.

그뒤 검찰에 송치된 趙씨는 『경찰의 고문에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그대로 기소돼 1심인 水原지법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인 서울고법에서 『범행시각및 장소,방법등을 볼때 趙씨의 범행으로 인정할수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됐었다.

검찰의상고로 이사건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게됐는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작성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과연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임의성이 있는것인지 의심스러우며▲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은것도 증거능력배척의 이유가된다고밝혔다.

聖誕이브 큰事故없이 차분
通禁해제 대부분 일찍歸家

차분하고 다소 쓸쓸한 느낌도주는 성탄전이었다. 올 크리스머스이브는 통금해제를 앞두고 통금없는시대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는데 큰사고없이 대부분의시민들도 평소처럼 일찍 귀가했다.

통금시대의 마지막 성탄전야가된 24일밤 서울시내에서는 강도1명、절도범20명、폭력69명、기타51명등 형사사범 1백41명、보안사범 6백29명등 각종사범 7백70명이 단속됐다.

이날밤 단속된 각종사범은 평일평균 2백24명보다는 3배나 많은 숫자이나 지난해 같은날 1천3백10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숫자이다.

사진은 明洞성당에서 성탄축하예배를 보고나오는 신도들.

聖誕特赦 전국서 일제히 어제석방
가족들과 再會기쁨

성탄절인 25일 상오10시를 기해 전국교도소·구치소및 소년원에서는 모범수형자·소년원생등 1천1백13명이 정부의 형집행정지·가석방·가퇴원조치로 일제히 풀려났다.

이날 각교도소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들의 가족 친지들이 마중나와 출감자들을 얼싸안고 재회의기쁨을 나누었다.

이날 출감한사람들중 光州사태관련자인 洪南淳변호사(68)는 光州교도소에서, 金大中사건관련자인 朴正熙씨(40·한국정치문화연구소부소장)는 大田교도소에서, 전기자협회장 金泰弘씨(39)는 光州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됐다.

이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백13명의 가석방자가 출감한 水原교도소에서는 상해치사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가석방된 유일한 외국인인 코이·프랭크·주니어군(18·미국인)이 끼어있어 눈길을 모았다.

또 출소자중 살인죄로 17년동안을 安養교도소에서 복역, 최장기 기록을세운 黃年燕씨(44)는 『다시 세상에 태어난것같다』면서 『재소기간중 취득한 2급기능사자격증으로 여생을 보람되게 살고싶다』고 출소소감을 밝혔다.

◇성탄절특사로 25일상오10시 安養교도소를 출소한 모범수들은 새출발을 다짐하듯 밝아진 표정이었다. 이날 정부의 특사조치로 전국 30개 교도소및 소년원에서는 1천1백13명의 수형자가 일제히 석방돼 그리던 가족품에 안겼다.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㉕

잊을수없는 X머스

내가어렸을때 크리스머스가 되면 延禧캠퍼스 뒷산너머에 위치한 우리집은 다른 집에 비해 크리스머스 트리가 열흘앞서 세워졌다.

어머니는 항상 다과와 음식을 차려놓고 아버지의친구 교수·학생들을 즐거이 초대했다.

아버지는 집안마당에 사냥에서얻은 박제노루를 실물처럼 꾸며놓았다. 소나무가지로 산골노루집 모양을 만들고 그 옆에는 샌터클로즈를 세워 놓았다.

샌터클로즈 할아버지와 노루는 실제 산골에서 처럼 정다운 콤비를 이루었는데 어느해였던가 하얗게 눈이 내렸을때 그 정경은 말할수없이 아름다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와 동생들이 잠자리에 들기전 벽난로 옆에다 양말을 걸어놓고 샌터클로즈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내려와 선물을 주고간다고 일러주었다. 우리들이 25일아침 눈을떴을때 정말 양말 속에는 맛있는 캔디·밀감·연필등이 담뿍 들어 있었다.

우리들이 잠든사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넣어둔 것인줄 짐작은 하였지만 막상 양말속의 선물을 받으니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25일새벽 나는 우리집을 찾아온 성가대의 크리스머스캐럴을 듣고 잠이 깨었다. 성탄의 기쁨속에 우리집을 찾아온 성가대는 새문안교회성가대、YMCA회원、구세군악단등 4、5팀이 넘었다.

이때마다 어머니는「메리크리스머스」하고 인사하며 맛있는음식을 대접했다.

나는 새벽캐럴에 신이나서 아래층에 내려가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나르고 심부름을 해드렸다. 크리스머스날의 우리집은 하루종일 손님이 끊이지않았고 저녁에는 큰파티가 벌어졌다.

새문안교회에서는 화이트 기프트(White gift)라고해서 하얀 색깔의 선물주머니를 만들어교회안에세운 크리스머스 트리에걸어놓았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저마다 선물주머니를 들고왔다. 겨우 걸음마를하는 아이가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트리밑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외국인학교 고학년학생이었으므로 쌀 한말이든 주머니를 불끈 들어 놓던 생각이 난다.

「화이트 기프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쓰이곤 했다.

해마다 크리스머스때가되면 미국에 사는 존·티·언더우드할아버지가 보내온 소포를 하나 하나 개봉하면서 이번에는 무슨 선물이 들어있을까하고 마음 죄곤 했다. 그때 인기있는 선물은 양과자였다. 미국서 보내준 과자의 맛은 지금도 잊지못한다.

크리스머스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잊지못하는 일이있다. 1885년 할아버지가 한국땅에 도착한 이후 우리집은 해마다 크리스머스를 맞으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곤했다.

그런데 1941년의 크리스머스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즐거운날이 될수없었다. 일본군의 진주만폭격직후 아버지와 나는 다른 선교사 20여명과 함께 연금돼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감리교신학대학에 연금돼 아버지는 조사를받은지열흘만에 일단 귀가조치되었으나 나는 5개월여를 꼬박 갇혀지내야했다.

아버지와 내가 갇혀있던 그해 크리스머스는 서대문경찰서 형사6명이 조사할게있다면서 우리집을찾아와 가택수색을 했다.

선교사집이기에 성탄절에 혼내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때 어머니는 조사를끝낸 형사들에게 음식을차려주고『해마다 우리집에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차려드렸는데 오늘손님들은 당신들뿐이니 맛있게드십시오』하고 친절하게권했고 그들은 맛있게들고 갔다는것이다. 우리집으로서는 잊을수없는 크리스머스였다.

소나무·노루박제로 마당裝飾

◇내가 어렸을때 어느해가 화이트크리스머스에 찍은 延禧洞 우리집 전경. 6·25때불타 현재는 단층으로 변했다.

해마다 즐기던 聖誕…41年엔 日帝에 軟禁돼 곤욕

바다에서 플룻을 <14>

梁順錫 作
金鈴 畵

그는 우리의 사이를 유희라고 말함으로써 병든 아내를 가진 남자의 죄의식을 다소나마 벗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당신이 죽음의 늪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삶의 문전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당신이 죽은 자라면 나는 아직 살고있지 않은 여자예요. 지금의 이 시간이 당신에게는 살아온 시간의 한 편린쯤일지 몰라도 나는 처음이에요. 그것을 유희라고 말하지 말아요』

차가 긴 주행(走行)을 마치고 목적지에 당도하였을 때는 아직 초저녁이었지만 어둠이 포만했다.

버스에 탈 때는 타인이었던 우리가 버스에서 내릴 때는 동행의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다. 그가 나의 가방을 들고 내 코트를 챙겨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내리기를 기다려 우리는 맨 나중에 버스의 통로를 빠져나왔다. 구겨진 신문지、빈병、휴지뭉치 등이 널려진 좁은 통로를 걸어나오며 그 속에서 지낸 시간이 퇴색될 것만 같아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바람이 부는군. 그 깃을 올리는 게 좋겠어』

습하고 냉한 바람이 사정없이 불어왔다. 낯선 소도시의 어설픈 풍경이 바람부는 곳에 버려진 나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이곳도 다를 것이 없군요』

『다르리라 생각했었나?』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된 최선의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어디나 삶의 방법은 흡사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용서가 있고, 거짓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지. 슬픔이 있는 곳의 슬픔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어디에선가 슬픔이 다시 이 빈 자리를 메꾸러 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 마치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어리석은 노릇이지』

그는 어리석다고 말했으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사랑하는 듯이 보였다. 어리석음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낯선 거리를 걸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막막했다. 혼자 떠나 혼자 걸어야 할 길에 한 사람이 동반되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그에게 의뢰할 것인가. 바람이 불었다. 나는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었다.

『이제 가겠어요』

『어디로?』

『……』

『저녁을 먹지……』

『바람이 심한데』

극심한 혼돈에서 오히려 마음은 아늑하였다.

『바다는 어떨까요?』

『불면하고 있을 테지』

『가겠어요』

『바다로?』

『네』

『춥군. 따뜻하게 저녁을 먹고 가도록 해. 데려다 주겠어』

안스런 눈길로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가득 정감을 담고서.

바다를 지척에 둔 낯선 도시의 외곽에서 나는 무엇도 내 힘으로 행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하였다.

바람은 거침없이 불고 있었는데 나는 바람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해외逃避가능성
請負살인 敎唆주범 美移民채비

속보=사촌매형 청부살인 미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麻浦경찰서는 25일 수배중인 살인교사주범 李鍾安씨(23)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큰것으로보고 전국각공항경찰에 긴급수배하는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도 李씨에 대한 출국정지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에의하면 李씨는 지난 7월14일자로 미국으로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전가족이민을 추진중이었으며 지난9월초에는 큰이모 韓모씨(미국 펜실베이니아州거주) 초청으로 20여일간 미국을 다녀오기도했다는것.

流星의 賦 <27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①

경도(京都).

일명 평안경(平安京)이라고도 한다.

약 5백년 전 나라(奈良)의 평성경(平城京)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당시 당(唐)나라의 장안(長安)을 본떠 거리를 바둑판처럼 설계하여 지었다.

경도를 또한 경락(京洛)이라고도 하는데 5백년쯤 도읍이 되다가 보니 별의별 로맨스가 꽃처럼 피어있었다.

일인들의 표현을 빌면 경도는 가서적(歌書的)으로 풍아하거니와、군서적(軍書的)으로도 로맨틱했다. 우선 이 서울을 무대로 하여 자란 로망엔 겐지 모노가따리(源氏物語)와 헤이께모노가따리(平家物語)가 있다.

「겐지 모노가따리」는 히까리겐지(光源氏)라는플레이보이의 행적으로서 엮은 로맨스이고、「헤이께모노가따리」는 평씨(平氏)의 성쇠(盛衰)를 적은 이야기다.

「헤이께모노가따리」는 이렇게시작된다.

「기원정사(祇園精舍)의 종소리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울린다 사라쌍수(沙羅雙樹)의 꽃빛깔 생자필쇠(生者必衰)의 이치를 말한다. 거만한 자 오래 가지 않을진저 다만 봄 밤의 환상과 같으니라」

당나라의 시、불교의 경문으로 가꾸어진 문화의 바탕이 만들어낸 문학인데 당시 일본의 경도는 반년동안의 전란이 계속되었는데도 이미 체질로써 풍아를 갖추고 있었다.

그 경도의 주작대로(朱雀大路)를、행립(行笠)에 행전에 옥색 도포를 입은 경장(輕裝)으로 홍계남이 활보하고 있었다. 때는 잔서의 그늘에서 양풍이 이는 8월초순. 시각은 신시(申時=7시). 석양이 뉘엿뉘엿 람산(嵐山) 마루에 있었다.

계남은 지금 요시오까도장(吉岡道場)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다. 계남이 그 도장에 출입하게된지는 불과 5일째. 낮엔 원래 제자들로서 붐비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의 시각을 택하여 계남은 일본의 검술을 익히고 한편 자기의 배운 검법을 전수(傳授)해 주기로 했다.

어느덧 총명한 계남은 일본어를 거의 알아들을수가 있었고、꼭 필요할 때 자기의 의사를 일본어로 표현할 줄도 알았다.

계남은 일본 무술의 진수를 아는것이 자기가 일본에 온 사명 가운데의 가장 큰것이란 자각을 가졌다. 날이 갈수록 계남은 일본의 검술이 보통이 아니란것을 알았다. 입신지기(入神之技)라고 할만한 검술이었다는것도 알았다. 당하군관(堂下軍官)의 신분、20세가 이제 조금넘은 정도의 나이로서 구태여 체모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홍계남은 일본인의 말 그대로 기명취리(棄名取利)할 작정을 한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百戰)해도 패하지 않는다는것은 손자의 병법이다.

계남이 일본 무술의 극의를 알고자 한 것은 적의 진수(眞髓)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오랜만에 평화를 맞은 주작대로엔 화려하게 차림한 여자들의 염소(艶笑)가 깔려있기도 했지만 계남은 눈을 팔지 않고 유연하고 활달한 걸음을 옮겨 놓고 있었다.

그날 밤 계남은 동국에서 왔다는 가미오까다이젠(神岡大膳)이란 검객과 시합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

謹賀新年

지난한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스터·오
선물센타
275—2187 오원균

음식百貨店 가스爆發 大慘事

大韓火災보험 빌딩地下구내 점심먹던 셋死亡·百여重輕傷

내부9百坪完破·LPG管이음쇠터져

세밑주말인 26일 하오1시20분께 서울中區南倉洞51의1 대한화재보험빌딩 지하1층 음식백화점에서 LP가스가 폭발, 경비원 鄭龍容씨(51)등 3명이숨지고 식사하러들어와있던 손님등 1백5명이 중경상을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유출된 LP가스가 4백50평짜리 음식백화점바닥에 깔려있다가 불씨를만나 폭발한것인데 폭발현장에서 30여m 떨어진곳에 50kg들이 가스용기50개가 설치돼 있었으나 충격을받지않아 다행스럽게 대형참사는 피할수 있었다.

이폭발로 음식백화점이 2개있는층을 포함、2개층 9백평내부가 박살이 났으며 폭발순간 지하3층 지상21층짜리 대형건물이 지진을 만난듯 흔들렸다.

이사고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전후해서생긴 대형화재사고에 대비한 화재비상령의 수칙을 지키지않아 생긴것이다.

사망자 ▲鄭龍容씨(48·대한화재해상보험 지하상가 경비원·서울東大門區祭基1洞968의45) ▲方順哲씨(27·재경년운동사무국장·道峯區月溪洞 월계아파트19동403호) ▲鄭星泰씨(24·한국은행저축부직원·龍山區厚岩洞247의20)

합동수사반은 이날하오 한국가스안전관리반 기술진을 대동, 현장을 감식한결과 폭발이 일어난 16호의 가스배관 이음쇠가 2㎜가량 터져 여기서 누출된 가스로 폭발된것으로 밝혀냈다. 숨진 경비원鄭씨는 16호주인의『가스레인지에 이상이 생겼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달려가 이음쇠의 터진부분에서 불이 붙은것을 보고 옆벽에 걸려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폭사했으며 밸브로 된 가스배관이음쇠의 파열이 사고의 직접원인이 된 것으로 판명됐다.

◇대낮 21층 地震만난듯 서울大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있는 중상자들。얼굴과팔 다리에 선혈이 낭자하다。

住宅경기 年初부터 浮揚

經濟의 흐름자극 制限的으로 實施

取得·登錄稅등 輕減

中旬부터 자금방출 部處異見조정후 實施

정부는 장기침체에빠진 주택경기를 부양 시켜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을 자극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 내년 1월중순께부터 시행키로했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위해 제한적인범위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므로 당초 이달중에 융자신청을 받아 내년1월부터 방출키로했던 3천억원의 주택수요자금융지원도 주택경기의 활성화방안에맞춰 내년 1월중순부터 신청을 접수, 융자해주기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26일 관계당국에따르면 주택경기활성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않았으나 ▲주택 수요자금융의 융자조건및 상환기간조정 ▲신축주택 매입자금 융자확대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등 주택구입에따른 부대비용의 경감 ▲국민주택채권의 첨가대상조정▲국민주택기금의융자대상및 융자규모확대등 주로 금융지원및 세금완화방안등이 거론된것으로알려졌다.

이에따라 내무부、재무부、건설부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각종 융자금의 융자조건및 재원조성문제를 협의중인데 현재로서는 관계부처간의 이견이심해 총리실등에서 거중조정에 나선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특히 재원문제는 상당부분을 국민은행의 여유자금에서 조달, 주택은행이 함께취급토록할 예정이나 주택자금은 長期低利자금이어야하므로자칫하면 국민은행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서민금융재원을 압박할 염려가있고 金利도국민은행에대한 플론 金利를게산해야하기때문에쉽사리 낮출수없어 결론을 내리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개정문제는 신축주택이나 아파트를 살때 취득세、등록세및 방위세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이 집값의 5%이상 되므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제기된것이다.

이밖에 주택자금의 확대는 사실상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므로 내년도 주택건설목표 27만호중 민간부문에서 짓기로한 17만호를더 늘려책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美海兵 휴전선서作戰 師團兵力규모로 進行

7艦隊 지원아래 1月中旬까지

【東京25日=聯】오끼나와(沖繩)주둔 美제3해병사단의 주력부대 수천명이현재 美제7함대의 지원을받으며 한국휴전선근방 鐵川을 중심으로 實戰을 방불케하는 대규모사격훈련을 실시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오도(共同)통신이 오끼나와 美해병대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한바에 의하면 『통합실탄 사격연습82』(CAFEX) 콤바인드·암스·파이어링·엑서사이즈82)로불리는 이번훈련은 지난12월초순부터 시작되어 내년1월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7함대 함선에 의한 지원함포사격도 행해진다.

한편 최근 이지역의 북쪽에서는 북괴군이 최대규모의 冬季훈련을 실시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波敎會·共黨수뇌協商 聖職者도울 抗爭촉구"

勞組비밀刊行物

【워싱턴25日UPI=聯】폴란드 가톨릭교회의 고위성직자들이 현 폴란드사태의 『정치적해결』을 위해 공산당지도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바르샤바에배포된 자유노조의 비밀공보가 밝혔다고 폴란드로부터 워싱턴에전해진 보도들이 말했다.

23일자로 된 이비밀공보는 이와 함께 협상에임하고 있는 가톨릭성직자들의 입장을 강화하기위해 회원들에 보다 광범위한 항의를 벌일것을촉구했다.

이 공보는 아무리 사소한 항의라 할지라도 모든항의행동은 군사정부에 대한 응징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보는 전국적인 국민항의물결이 현재 진행중인협상을 연결되도록 할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臺灣·本土통일은 中華民國 憲法서

蔣經國總統 밝혀

【臺北25日AP=聯】蔣經國자유중국총통은 25일『대만과 중국본토가 오직 중화민국헌법하에서 통일되어야만이 중국이 진정으로 중국인들의나라가될수있다』고 말했다.

蔣총통은 이날 자유중국의 제34회제헌절기념식전에서 정부고위관리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자유중국정부는 현행 헌법하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실현시켰으며 1천8백만 이곳주민의 번영과 행복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광고문의 533·2361

美西獨 頂上會談 來5日 워싱턴서

【워싱턴25日UPI=聯】헬무트·슈미트 서독수상은 美플로리다州에서 휴가를 가진후 오는 1월5일 워싱턴에서 로널드·레이건 미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25일 미국방문길에 올랐다.

國會 事前협의검토 다음豫算 編成부터

정부·여당은 새해부터 정부의 예산안편성과정에 국회와 정부가 事前협의를 갖도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같은 검토는 국회의예산안 심사때마다 與野가 삭감문제를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종전의 폐단을 지양、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정책적인면에서 국회의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위한것으로 보인다.

社會漫評

빠르기도하고…더디기도하고…

社告

새해 새連載小說

<1월5일字부터 게재>

◇새해의 새소설「그해겨울은 따뜻했네」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朴婉緖씨(右)와 金光培화백。

그해겨울은 따뜻했네

話題의 女流作家가 던질 新鮮한 충격

朴婉緖 作
金光培 畵

한국일보社는 우리文壇에서 小說의 眞髓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여류작가 朴婉緖씨(50)의 새 연재소설「그해겨울은 따뜻했네」를 壬戌年 새해에 독자여러분을 앞에 펼쳐드립니다.

朴婉緖씨는 그누구의 소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단단한 재미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강한 問題意識을 나란히 품고있는 일련의 소설들을 써내고 있어 가장 인력 넘치는 작가로, 또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로 사랑을 모르는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40세에 장편소설「裸木」으로 文壇에 첫발을 디뎠으나 그후 10여년간 놀랄만한 에너지의 활동을 담겨 많은 소설을 쓰면서, 매 소설마다 모두 어김없이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내곤 했습니다.

특히 그가 이번에 쓰게될「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지금까지 쳤던 소설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새롭고 신기한 재미로 독자 여러분에게 신선한 충격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소설은 6·25동란중 서로를 잃어버려야 했던 두 姉妹가 30代 여성이 되기까지 각각의 특수한 환경속에서 성장하며 빚는 갖가지 다채로운 人情的·愛情的인 사건을 교차시키며 對比하는 이색수법으로 전개됩니다.「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여러분의 눈길을 이끌고 놓지 않을것이며 그 스토리마다 우리들을 사이에서 스러져 가는 사람의 기쁨을 다시 진하게 일깨워줄 것입니다.

오는 1월5일자부터 연재될「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삽화는 섬세하고 정확한 筆致로 특히 여성의 심리묘사에 탁월한 솜씨를가진 金光培화백이 맡아 수고하게 됩니다.

"우리가기댈건 사랑과 良心과 眞實 얼음구덩이서 善意파낼 熱望으로"

作家의 말

나는 오래전부터 부드럽고 따뜻한 이야기를 쓰고싶었다. 인간의 속을 이루고 있는 따스한 善意를 얼음구덩이에서라도 파내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가져왔다.

「그해겨울은 따뜻했네」는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그같은 착한 善意를 주제로 삼아 인간이 믿고 기댈것은 결국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과 良心과 眞實이라는 것을 말하게 될것이다. 인간 관계 때문에 각각 나뉘어져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속에서 성장하는 두여성의 이야기를 속도감있게 펼쳐보이겠다. 아연해 소설은 신문소설이란 굳에 신경을 쓰지않고, 이후 나의 作家生涯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있는 하나의 지극한 人間 드라마가 되도록 꾸밀 생각이다.

한국일보社

地平線

『고구려와 백제가 한창이었을 때에는 백제만의 強兵으로 남으로 북으로 吳越과 齊魯의 땅을 쳤었다』고신라말의 지식인 崔致遠은 기록하고 있다. 崔致遠이 살았을 때만 해도 고구려와 백제에 관한 원래의 역사기록이 꽤 남아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두나라가 동북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활동하던 모습의 그림자가 이 한귀절에 남아 있는 셈이다. ▼고구려가 北魏에 보낸 글에 의하면『백제가 신라를 병합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은 백제 武寧王때에 해당하는 연대다. 사실상 이때는 3국시대라기보다 남녘조시대라고 할만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나라의 크기로 보더라도 백제가 망했을때 호구수가 76만호, 고구려가 69만호였다고 중국의 기록은 말하고있다. 지금의 상식과는 달리 백제가 큰 나라였던 것이다. ▼중국대륙에 唐이라는 세계적 대제국이 성립한뒤 백제가 무너지자 성립된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백제의 연장이었다는 것이 일본의 기록에 보이고있다. 이때 일본에서 벼슬을 받은 백제사람만 余自信등 7백명이 있었다. 吏部에 해당하는 法官大輔 문교장관격 국립대학총장격인 學職頭등이 이름난백제귀족이었다. 어쩌면 깜짝놀랄 일이라고할만하다. ▼우리의 전통사학에서 백제는 반도서남부한쪽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약소국으로 돼있다. 게다가 일본의 사학자들은 백제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속국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일본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말하자면 고구려 廣開土大王碑라는 것은 잘알려진 일이다. 이비석을 근거로 일본사람들은 남한땅이 일본의 세력권이었다고 말하고있다. ▼광개토대왕 비석중에서도 일본사람들이 내세우는 유명한 구절이『辛卯年이래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신라를 속국으로 만들었다』고 해석하고있는 귀절이다. 이귀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입씨름이 계속돼왔던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재일동포학자 李進熙씨에 의해 이 대목을 비롯해서 비석의 내용자체가 일본군부에 의해 날조됐다는 것도 밝혀졌었다. ▼한걸음나아가 李亨求·朴魯姬씨 부부에의해 이대목이 날조된 구체적과정이 분석됐다. 倭란 後라는 글자를 고쳐 새긴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이 남한을 지배했다는 세계에서 유례를 볼수없는「역사날조」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 엄청난 역사의 증인 광개토대왕비를 중공당국은 1급국보로 치고 보수공사를하고있다한다. 당장 달려가 우리 눈으로 보고, 연구할수있는 길이 없음이 아쉬울 뿐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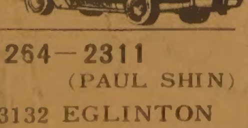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동주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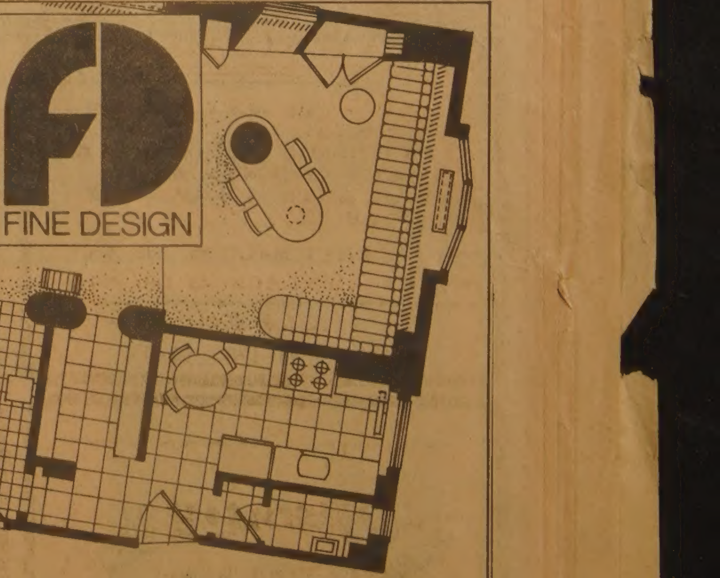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E.
(Markham × Eglinton)
신성우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Dec.21 - Jan. 9 82

		(spec)
Neilson Reg. bar	36x40¢	9.59
Cadbury Reg. bar	36x40	9.69
Rowntree Reg. bar	36x40	9.59
Cadbury thick bar	36x55	13.75
Breath savers	12x30	2.55
Pot of gold box choco.	450g	3.85
Allmondillos box choco.	400g	3.85
Black Magic box choco.	1/2 pd.	2.15
Turtles box choco.	400g	4.19
Toffifay box choco.	391g	4.29
Lee's snow ball	36x25	6.00
Neilson chunks	120x15	10.65
Moirs bag candy	24x25	3.09
Double bubble soft gum strawbury	20x30	3.45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Lawrence Keele Caledonia Dufferin

FD FINE DESIGN



상점·음식점·사무실·교회·주택등의 실내·외부 디자인및 시공을 담당하며 필요하신 가구의 설계및 제작 또는 선택과 구입을 도와드리며 카펠·카텐 벽지·페인트등의 색·품질·선택·구입 주문등도 도와드립니다.

676•1173/622•5328 조덕남

中共·北傀 見解큰차이

趙紫陽 북괴방문 成果없어

【홍콩25日=聯】중공수상趙紫陽이 지난20일 제5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전체회의가 끝난뒤 최근 북괴를 방문, 북괴노동당및 정권관리들과 수차례 회담을갖고 정치·경제·문화및 국제문제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기대했던만큼의 성과는 거두지못했다고 25일 홍콩時報와 중공관측통들이 풀이했다.

이번 趙紫陽의 북괴방문은 현식상 지난1월 북괴수상李鍾玉의 北京방문에 대한답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방문의주요목적은 최근 中共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있는 북괴가 親蘇側으로 기울어질것을우려, 이를 방지해 보자는데 있었다고 이 신문은 논평했다.

이 신문과 관측통들은 또 북괴는 中共의 실력자 鄧小平이 펴고있는 ①현대화계획 ②개방정책 ③미국과의 관계 ④제3세계에대한 중공의 소홀한 정책 ⑤폴란드사태 ⑥개인숭배에 대한 중공의 비난등에관해 못마땅해 하고있어 북괴와 중공간의 異見이 그리 쉽사리 좁혀질수없는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관측통들은 이어 북괴의金日成은 아직도 스탈린주의와 毛澤東에 대한 이념적 향수를 느끼고있다고 덧붙였다.

對蘇外相회의 提議

日外務省, 平和조약 체결위해

【東京26日AP=聯】일본외무성은 일소양국간의 평화조약체결을 위해 양국 외상회의개최를 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외무성소식통을 인용, 일본정부가 2년8개월만에 처음으로 내년1월20일부터 2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릴 일소실무급협의회에서 외상회담개최를 제의할것이라고 말했다.

일소외상회담은 지난1978년1월 당시의 소노다·스나오(園田直)일본외상과 안드레이·그로미코소련외상이 모스크바에서 만난이후 중단되어왔으며 그후 소노다외상이 지난10월 뉴욕에서 그로미코외상을 만나 양국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재개에 합의한바있다.

蘇 中距離미사일 減縮용의

美의 對蘇군사優位는 容納안해

蘇軍대변인, 유럽核배치言及

【모스크바25日AP=聯】소련은 미국이 對蘇군사력우위를 확보하도록 방임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네바核군축회담에서 미국측이 동의한다면 유럽배치 중거리미사일을 「수백基」정도 감축할 용의가 있다고 25일 소련군부가 밝혔다.

소련군부대변인 니콜라이·체르포프중장은 그러나 미국이 현재 이군축회담에서 노골적인 군사적우위를 추구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소련이 이회담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있다는 서방측의비난은 말도되지않는것이라고 일축했다.

체르포프중장은 이날 타스통신으로 보도된 TV회견을 통해 국제정치계에서 「暗雲」이 걷히고 안정되고는 순전히 미국측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소련만은 현재도 美蘇쌍방이 다같이 「이해할만한」방법을 계속 모색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담에서 美國이 제의하고 있는대로 蘇聯의 유럽배치미사일을 모두 제거할 경우, 나토측은 중거리 운반체에 있어서 약2배, 核能力 投射量에 있어서 약2배이상 각각 對蘇우위를 갖게될것이라고 평가했다.

蘇, 팽창 포기안해

新華社통신警告

【北京25日AP=聯】중공은25일 소련이 현재 내부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있으나 그 때문에 後發강대국인 소련이 쇠퇴하거나 팽창주의정책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은 이날 한 논평기사를 통해「역사적으로 好戰주의자들은 경제적 번영기가 아니라 위기에 처해있을때 군사적모험을 감행했다」고 전제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메아리

노인헌장

諺語에 능한 일본인들은 우리에겐 생소한「熟年」이란 단어를 활용하고 있다. 熟年은 45~65살 사이의 장년과 初老의 노인예비군을 뜻한다. 누구에게나 닥칠 고령을 의식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자는 세대다.

東京엔「熟年110번」이란 인생상담 전화도 등장했다. 특히 정년을 앞둔 샐러리맨들을 상대로 노후대비 상담을 맡고있다.「미국의 熟年」들은 더 혈기왕성하고 적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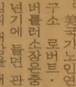
「인생은 55세부터」라며 오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에 빨리 적응해 간다. 美국가노인연구소 로버트·버틀러소장은 중년기에 들면 관심의 대상을 개발하고 정년 이후에도 적성에 맞는일을 찾아 활동하라고 권장한다.

노인천국을 구가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선 사회보장에 의한 노인복지가 큰 고민거리로 변하고 있다.「요람에서 무덤까지」란 구호가 위협받는다. 고령인구가 늘어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실업률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새 연금제도법을 검토하고 영국은 정부백서를 통해 노인의 사회보장의존을 낮춰 갈 것이라고 밝힐 만큼 진통이 대단하다.

아무런 노후보장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클로즈업 되어간다. 경로의 전통은 산업사회가 탄생시킨 핵가족에 의해 퇴색된지 오래다.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않는 노인들은 사회의 중요부문에서 자주 격리된다. 지난 여름 한국갤럽이 조사한 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에 따르면 83%가 자녀와 함께 살기를 바라며 34%가「일」을 절실히 원하고있다. 외국에 비해 아들과의 동거율이 가장 높은 한국노인들이 오히려 고독을 더 느낀다.



동경도위생국하회지 발표로는 일본노인들의자살동기는 7~8할이 가정문제라고한다. 노후대책은 우선 가정에서의위치를 새로 정립하는데 있다는 힌트로 생각된다.

새해엔 유엔 주관으로「세계노인문제회의」가 열린다. 우리 정부도 노인헌장제정등 여러사업을 추진할것이다. 이 사업이 지엽적인데로만 흘러서는 안되겠다.

교통료나 위락시설 입장료의 할인보다 부모를 모시는 대가족에 과감하게 면세혜택을 준다든가 인구, 주택, 고용, 취업같은 높은 차원에서 해결의열쇠를 찾아가야 할것이다. 떠들썩한 잔치로는 결코 晩年이 즐거울수 없다고 생각한다.

"拘束者 곧釋放"

수용소訪問 取材등 許容

波軍事評議會 밝혀

【빈25日AP=聯】폴란드 군사평의회 대변인은 25일 폴란드 계엄선포이래 체포된 인사들의 대다수가 곧석방될것이라고 말했다.

비에스와프·고드니키 대변인은 또『서방기자들이 체포된 인사들을 자유롭게 인터뷰하고 수용소를 방문할수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대변인은「일부 감자들은 계엄선포이전에 죄를 범한것으로 확인됐기때문에 석방될수 없을것」이라고 밝히고 자유노조의 스체친지부장등이 그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폴란드의 전통은 군사독재를 결코 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엄선포는 국내위기가 확대되는것을 막기위해 취할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敎皇特使 만나는 야루젤스키 최근 바티칸 교황청특사 루이기·포기대주교를 만나고있는 폴란드공산당제1서기겸 수상 야루젤스키. 이사진은 뉴욕에서 TV화면으로부터 찍은 것이다.【뉴욕25日AP=聯】

波수상, 敎皇특사와 會談

親書받고 見解검토 약속

【런던25日AFP=聯】폴란드공산당제1서기겸 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는 교황요한·바오로2세의 특사 루이기·포기대주교와 회담, 폴란드사태등을 협의했다고 바르샤바TV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런던의 BBC방송이 청취한 바르샤바TV방송은 이회담에서 포기대주교는 야루젤스키에게 교황의친서를 전달했으며 야루젤스키는 친서에 담긴 교황의견해를 주의깊게 검토할것임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바르샤바TV방송은 이어 야루젤스키와 포기특사가 상호이해의 정신속에서 폴란드사태등을 비롯하여 폴란드와 교황청과의 관계및 폴란드에서의 국가와 교회간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祖國 폴란드는 나를 부른다"

쇼팽 特急列車로 波국민들 歸國길 올라

戒嚴令下불구 食糧자루들고 "愛國心때문"

【빈25日AP=聯】폴란드인들이 쇼팽특급열차를 타고 사회·정치·경제적 혼란속에 엄격한 계엄통치를 받고있는 故國으로돌아가는 광경은 서방인들에게는 이상한 광경이 아닐수없다.

지금도 여느날들과 마찬가지로 폴란드인들은 출렁고도 떠들썩하며 지저분하기조차한 전송광경을 연출했다.

빈에 남아있게될 폴란드인들은 기차창가에서 그들의 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말롱과 감자튀김을 나눠주면서 폴란드노래를 부르거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포들과 열렬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쇼팽특급열차가 빈의 남부역을 떠나감에 따라 이 열차내의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담고르자타·우롤라타라는 23세의 한 젊은 여인은『나는 내가족과 친구들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 양친과 어린 자식, 그리고 특히 폴란드軍에 입대해있는 남동생에게 어떤일이 벌어지고있는지알아봐야만한다』고강조했다.

그녀와함께 귀국길에 오른 역시 크라쿠프출신의 유레크·야굴라즈라는 사람도 동감을 표시했다.

그는『내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빈에는 먹을것과 마실것이 많으나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를 소포로 보내는 것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빈에서 이 꾸러미들을 들고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열차내 복도까지 넘어나와 있는 불룩한 자루들과 상자 및 꾸러미들은 고국행 쇼팽특급열차에 3개 객차를 메우고 있는 폴란드인들이 한결같이 식량이 부족한 고국에 먹을것을 가져가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나 대화가 계속됨에 따라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또다른 동기가 밝혀졌다.

즉 그것은 다름아니라 바로 애국심때문인것이다.

올라타는『나는 폴란드인들이 조국을 대우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귀국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슴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쇼팽특급열차는 체코국경을 향해 달려갔다. 곧 오스트리아의 여권검열관들이 탑승했다. 그리고 소련블록軍의 제복을입은 젊은 체코국경감시원도 열차에 올랐다.

체코 브라티슬라바의 이국경역을지나면서 열차의 객차들은 분리되었다. 후미의 객차는 체코수도 프라하로 가서 다시 東獨으로 향하며 가운데있던 객차들은 모스크바로 떠났다.

그리고 폴란드로가는 객차는 눈덮인 이국경역에 홀로 남아있었다.

이 객차의 내부에서 폴란드인들의 생각은 계엄령하의 고국으로줄달음치고있었다.

海外토픽

샌터클로즈 監禁

★풀린후 10만弗 賠償소송

오클라호마시티의 한 샌터클로즈할아버지는 자신을 강제감금시켰던 한 쇼핑센터를 상대로 10만달러의 배상소송을 제기.

리처드·스티븐즈라는 이름의 이 샌터클로즈할아버지는 자신이 지난10일 파이프 담배와 茶주전자를 사기위해 이쇼핑센터에 들렀었는데 이곳 경비원들이 자신을 잠겨진 방속에 45분동안이나 감금했을 뿐 아니라 신문까지 한데대해 그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한편 쇼핑센터관리들은 스티븐즈씨가 이곳의 진짜 샌터클로즈할아버지인 로니크와 경쟁(?)하기위해 쇼핑센터에 들른 허가받지 않은 가짜 샌터클로즈할아버지로 생각했다는 것.【오클라호마시티=UPI】

◇원숭이에「人造팔」 절단된 팔대신 인조팔을 부착한 긴팔원숭이 사이·보리양이 한동물원여직원의 품에 안겨있다. 시애틀의 우드랜드공원동물원 직원들은 지난해겨울 어미에게 물려 팔이절단된이원숭이에게 인조팔작동법을 가르치고있는 중이다.【시애틀(美워싱턴州)25日AP=聯】

比中部에 태풍強打

【마닐라26日UPI=聯】태풍리가 26일새벽최대풍속시속 165㎞의 강풍을몰고 필리핀중부지역을 휩쓸었다고 필리핀기상국이 이날 말했다.

佛勞總임원들 默念

波노동자同情파업

파나마勞組, 29일 5分間

【파나마시티·파리25日UPI=聯】파나마의 이스트마스노조본부(IWC)는 25일 파나마국민들에게 폴란드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5분간의 전국총파업을 촉구했다.

또 프랑스의 그리스도교노조인 민주노동총동맹(CFDT)의 임원60여명은 이날 파리주재 폴란드대사관앞에 모여 군사정권에 의해 투옥된 폴란드노동자들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1분간의 묵념을 올렸다.

IWC는 각공장·사무실·상점에 대해 오는29일 정오를 기해 5분간의 상징적 총파업을 단행할것과 모든 차량의 운행중지를 촉구했다.

星港·泰서競技희망

中共, 월드컵축구

【北京25日AP=聯】中共축구협회는 오는 82년 스페인월드컵축구 아시아·대양주지역예선 中共-뉴질랜드 경기를 濠洲의 멜번보다는 싱가포르 또는 泰國에서 갖기를 바라고있다고 25일 中共관영 新華社통신이 보도했다.

中共측은 앞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對뉴질랜드경기를 내년1월9일 콸라룸푸르에서 개최토록 결정했으나 말레이지아정부가 이경기의 개최를 승인하지 않은데 이어 싱가포르 또는 멜번을 개최지로 제의하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82년 월드컵축구아시아大洋洲지역예선에서는 쿠웨이트가 첫번째로 결승진출이 확정됐으며 中共과 뉴질랜드는 두차례의 경기를 가졌으나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제3국에서의 한판경기로 결승진출을 결정하게되는데 新華社통신은 싱가포르나 泰國이 中共과 뉴질랜드의 중간지점이라면서 멜번에서의 경기개최를 반대했다.

朴元根등 3명參加

요미우리 마라톤

제12회 요미우리·마라톤대회가 27일 보후(防府)시에서 열린다. 이대회에는 陸軍3사관학교의 朴元根·吳在道·柳文鎬등 3명의선수가 참가한다.

한국기록경신의 기대를 모았던 朴元根은 출국에 앞서 가진 강화훈련서 왼쪽 발가락을 다쳐 좋은 기록을 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朴元根은 2시간13분대 돌파를 목표로 연습해 왔는데 발가락부상의 회복정도에 따라 기록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英세바스찬코 1位

佛레키프誌 選定

【파리25日UPI=聯】81년 여러차례 육상중거리 종목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英國의 세바스찬·코선수가 금년도『세계챔피언중의 챔피언』으로 선정되었다.

프랑스의 스포츠전문지 레키프가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 육상 8백m(1분41초72)와 1천m(2분12초18), 1천6백m(3분47초33)에서 세계기록을 경신한 코선수가 1위를 차지했으며 81년도 윔블던테니스의 王者 존·매켄로가 2위를 차지했다.

레키프紙가 선정한 81년대 세계스포츠스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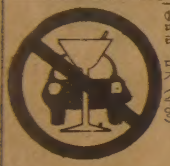
①세바스찬·코 ②존·매켄로 ③칼·하인츠·루메니게(西獨·축구선수) ④슈가·레이·레너드(프로복싱웰터급통합챔피언) ⑤야마시따·요시꾸로(日·세계유도헤비급및 무제한급 챔피언) ⑥리날도·니헤미아(美·110m허들세계기록수립) ⑦베르나르·이노(佛·사이클링) ⑧후리·바르다니안(蘇·力道) ⑨칼·루이스(체조) ⑩메리·미거(수영)

朴鍾八, 11차방어전

泰프렌차이와

OPBF(동양·태평양권투연맹)미들급챔피언 朴鍾八(20)이 내년1월3일 문화체육관에서 태국의 마나·프렌차이(26·동급9위)를 맞아 11차방어전을 벌인다.

22승(20KO) 1무2패의 朴은 지난 10월 10차방어전에서 프렌차이를 고전끝에 12회KO로 제압한바있다. 朴의 이번대전은 지난 8일 베네수엘라에서 오벨·메히아스(WBA동급2위)에게 8회KO패한뒤 2개월만에 갖는 재기전이다.



디나모배구 오늘개막

男女대표팀모두참가 女子팀 결선진출낙관

【암스테르담=金仁奎특파원】금년도 디나모 국제남녀배구대회가 남녀8개팀씩 16개팀이 출전한가운데 27일 암스테르담에서 1백㎞떨어진 아펠도른·스포츠홀에서 개막, 30일까지 4일동안 열린다. 남녀 대표팀을 파견한 한국은 남녀팀모두 B조에 속해있다. 이번 대회는 2개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벌여 결승토너먼트로 패권을 겨루도록 되어있는데 한국여자팀은 벨기에, 네덜란드B, 西獨과 한조를 이루고 있어 결선진출이 무난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자는 헝가리, 폴란드, 프랑스등 강호들 틈에 끼어있어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한국 남자팀은 西獨함부르크국제대회서 헝가리, 프랑스에 패한바있다.

◇출전팀

▲남자A조=이탈리아 이집트 네덜란드 서독 ▲동B조=한국 헝가리 폴란드 프랑스 ▲여자A조=헝가리 네덜란드A 프랑스 디나모 ▲동B조=한국 벨기에 네덜란드B 西獨

◇한국경기일정(한국시간)

◆남자 ▲27일=대 헝가리(하오10시30분) ▲28일=대 폴란드(상오4시30분) ▲대 프랑스(하오4시15분)

◆여자 ▲27일=대 벨기에(하오11시45분) ▲28일=대 네덜란드B(상오5시45분) ▲대 西獨(하오8시)

韓國선수 12명壯途

美 J테니스出戰

27일 美國뉴욕에서 개막될 81년도 롤렉스 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에 출전할 韓國선수단 12명(임원3·선수9)이 26일하오 KAL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流星의 賦

<27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②

계남이 수인(隨人)을 데리지않고 혼자 요시오까도장(吉岡道場)으로 간데엔 이유가 있었다.

가미오까다이젠(神岡大膳)과의 시합이 어떻게 끝나건 그것이 통신사 일행들에게 알려지면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요시오까도장의 요시오까세이따로(吉岡淸太郎)가 가미오까(神岡)와 계남을 대결시킨것은 신강류(神岡流)를 창안했다고 뽐내는 가미오까가 계남의 백원검법을 상대로 어떻게 할수 없을것이라고 믿었던 까닭이다. 가미오까의 신강류는 일본의 전통적검술에 대항하기위해 안출된 것이었기 때문에 전연 취향이 다른 백원검법엔 당황할것이 확실했다.

삼백조(三百疊) 넓이의 대도장(大道場)은 먼지하나 없이 청소되어 있었고 넓은 서창(西窓) 너머론 추색(秋色)에 물들기 시작한 정원수들이 저물어가는 대기속에 숙연했다.

도장 이곳 저곳에 대등(大燈)이 즐비하게 걸려 낮을 방불케할만큼 밝았다. 남북의 벽쪽으로 도장의 문인들이 정좌했는데 기침 소리하나없이 물을 뿌린듯 정숙했다.

이윽고 홍계남이 조선 군관의 정장으로 남쪽에서 나타났다. 북쪽에 가미오까가 하얀 띠를 이마에 두르고, 역시하얀 대로 소매를걷어올린 자세로 섰다. 가미오까의 나이는 40세라고 했다. 10세때부터 검술을 익혀 삼십성상에 이르러 드디어 신강류(神岡流)를 창안한 만큼 그안광은 형형하고, 모습은 씩씩했다.

두 사람은 오늘의 심판인 요시오까를향해 서서 가볍게 읍했다. 그러자 요시오까의 말이 있었다.

『멀리서 온 조선의 검객 홍계남공과 신강류의 지남(指南) 가미오까다이젠과의 검술을 보게된 것을 본 도장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대결은 어디까지나 검의 도(道)의 대결일 뿐, 승부(勝負)를 가리지 않는다. 승부를 가리지 않는 이유는, 홍공께선 일국의 사신으로서 오신 분이므로 그 사명이 달려 있기때문에 몸을 상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기 까닭이다. 검의 도에 있어서 피차의 본령이 발휘되었다고 판단했을때 나는 이 시합의 종료를 고할것이다. 따라서 양 검객이 사용할것은 목도(木刀)로 정한다.』

그리고는 문인을 시켜 배검을 제출케하고 양 검객에게 목도를 주었다. 가미오까는 이에앞서 진검(眞劍)이 아니고선 시합할 맛이 안난다고 우겼으나 요시오까는『검의 도를 비교해 보는 일이니 승부를 결할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하고『외국 사신의 신상에 불려의 일이 있어선 안되며, 만일 꼭 진검을 고집한다면 나는 이 시합을 용허할수 없다』고까지 주장하여 목도의 사용을 고집했던 것이다.

계남은 백원검법 제삼형(第3型), 야마분종(野馬分鬃)의 자세를 취했다. 가미오까는 목도를 정안(正眼)으로 겨누었다. 홍계남은 가미오까는 왼쪽으로 몸을 날리는가 했더니 비호(飛虎)처럼 오른쪽으로 덤볐다. 그야 말로 눈깜박할 사이였다. 가미오까의 목도가 공중으로 날았는데 그 날은 목도가 다음 순간 계남의 왼손에 쥐어져 있었다.

바다에서 플룻을

<15>

梁順錫 作
金鈴 畵

바다는 비어 있었다. 바다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아우성같은 소리가 서서히 우리를 유인하고 있었다.

바다는 거기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다가가는 쪽은 우리였는데 바다가 그 거대한 몸 전체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았다.

칠흑같은 어둠, 모든 소리를 삼키는 바다의 음성, 해변의 둑에 올라서서 어둠에 가려진 바다의 모습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침묵하며 바다를 향했다. 나는 그곳을 향해 걸으면서도 나의 걸음을 느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 마치 바람의 힘과 같은 손이 나의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불가항력의 힘을 느꼈다. 그리고 똑같은 힘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었다. 나는 나의 몸을 그대로 바람과 바다에 내맡겼다.

『어디 있어요?』

바다의 음성을 배음으로 하고 나의 목소리는 느닷없이 울려퍼졌다.

『무서운가?』

그의 목소리 역시 무수한 파장으로 번졌다.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아늑하군요.』

『바닷가에 살았어?』

『아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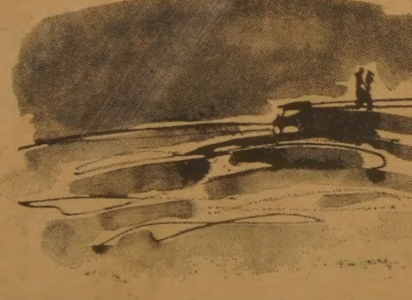
『곧 바다가 나타날거야. 아주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는 망연해지겠지. 나는 한때, 바다에 턱없는 기대를 걸곤 했지. 바다에가면 위로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같은 것 말이야. 달려가 보면, 바다는 언제나 그 모습으로, 그 만큼의 부피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존재해 있었어. 뭐랄까, 바다는 환상과 같은 거였을거야.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이후로 나는 아무런 기대도 품지 않고 바다를 찾았어. 오랜 친구를 만나 그저 얼굴이나 쳐다보듯이, 그렇게 바다와 대면하는 것으로 그쳤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하는거야. 바다에 다녀왔노라고. 바다는 실제 아무의미도 없고 바다의 환상이 내게 작용했던 거요.』

그는 내게 말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바다를 향한 독백처럼 들렸다. 바다라는 하나의 관객 앞에 펼쳐진 지상이라는 무대에 선 배우처럼 내가 그의 말을 받았다.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은 늘 바다였어요. 바다가 위안이 될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은 삶의 막바지에서 언제나 되풀이되었어요. 기억할 수 없는 내 어머니가 나를 바닷가에서 낳지는 않았을까요? 바다는 하나의 벽(壁)일수도 있어요. 지상의 벽, 삶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우회되곤 했어요』

『보이는군 바다가』

그가 낮은 탄성으로 말했다.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의 둑에 올라섰고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선 것은 바다의 모습이 아닌 파도소리였다.

『보이는 것은 바다가 아니라 흰 포말뿐. 바다는 보이지 않고 들리는군요』

아직 하늘과 바다와 해변을 경계지울 수 없는 어둠속에서 유일한 생명처럼 흰 거품의 띠가 길다란 수평으로 달려와 어둠에 파문했다. 광막한 모습이었다.

『바다는 언제나 살아 있어요』

『그래,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지』

잠시후 수평선을 경계로 어둠보다 짙은 바다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늘은 그보다 묽은 빛이었다.

『내려설까?』

그가 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둑으로부터 가볍게 뛰어내렸다.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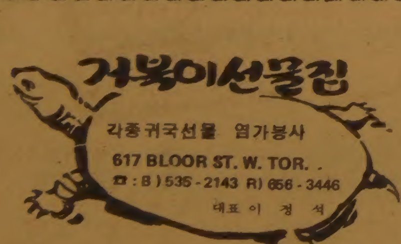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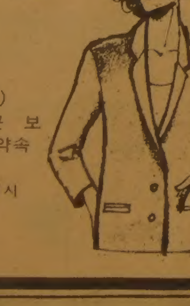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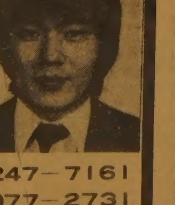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 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534－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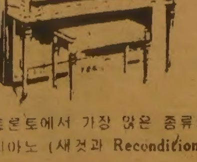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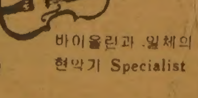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빌딩「가스地震」

—세밑週末덮친 음식백화점 폭발詳報

"꽝"爆音이어 暴風몰아쳐
점심 손님 虛空에"붕"…아수라장

◇마치 폭격당한듯 박살난 음식점 누출된 LP가스가 바닥에 고여있다 불씨에 인화되면서 폭발, 박살난 지하1층 음식백화점내부。점심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날벼락을 당했다。

평화스럽게 점심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떨어진 날벼락이었다。『꽝』하는 폭음에 이은 폭풍, 폭풍으로 무너져 내린 천정이 식탁위를 덮치자 사방에서 비명이 터지는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듯 지상21층의 대형 빌딩이 흔들렸고 밑에층 사무실의 유리창이 박살났으며 음식백화점안 60개점포가 모두 폭격을 당한듯한 모습으로 변했다. 또 지상층에있던 숭례문상가층4백50평도 모두무너졌는데 내부가 모두불연성자재여서화재는 일어나지않았다。숨진 鄭씨는 지상층과 지하1층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10m떨어진 후문옆책상에 앉아있다 폭풍으로 몸이날아 벽에부딪쳐숨지고 나머지2사람은지하음식백화점에있다 변을 당했다。

폭발

21호에서 식사 중이던 김서한씨(42)는 계단근처에서 불이나 경비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순간 폭음과 함께 강한바람이 불어 정신을 잃었다。 음식백화점 29·32호를 경영하는 士貞禮씨(46·여)는 손님에게 물을주는 순간 귀를 찢는듯한 폭음과 함께 15호옆 계단에서 시커먼물체가 날아왔고 주방용기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천정합판이 내려앉아 정신을잃었다。

지층 숭례문상가에서 수입품코너를 경영하는 孫禮姬씨(38·여)는 지하로 통하는 계단에서 붉은불기둥이 솟아오른뒤 상가내부가 폭풍으로 박살이 났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자 음식백화점과 지층상가가 정전돼 부상당한 사람들은 암흑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폭발순간 南大門시장에 있던 南部경찰서형사계소속 趙錫경장(45)은 즉시 현장을들어가 화상을입은 12명을 구출, 서울5가4121호 마이크로버스로 서울大병원으로 옮겼으며 지나던 시민들도 구조작업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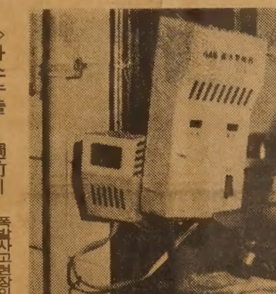
사고난 음식백화점 내부는 진열대와 주방용기, 천정, 형광등등이 모두 박살나뒤엉켰고 지층 숭례문상가도 폭발시의 폭풍으로 진열장과 천정의자등이 제멋대로 날아 부서졌다。 남대문쪽으로난 대형 진열창은 깨어지면서 그파편이 50m나날아 근처를 지나던 화교 劉永德씨(34) 등 행인들이 파편에 맞아 피를흘리기도했다。

지상층상가南門정육점주인 白南鐵씨(54)는 폭발순간 대형진열창이 깨어졌다며 마치 폭탄이 떨어진것 같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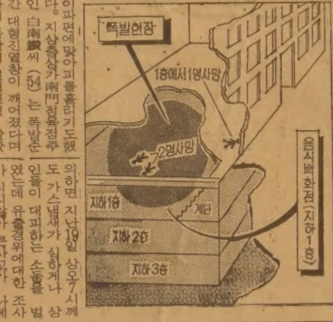
폭발당시 빌딩전체가 크게 흔들려 빌딩안에 있던 사람들은 지진이 난줄알고 서로 빠져 나오느라 큰소동을 벌였다。

한편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卓陽실업대표 白光一씨(40)는 건물외곽 30m지점 국기게양대밑에 50kg짜리 50개를 묻어둔 LP가스저장탱크가 있으나 이 탱크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백화점 상인들에 의하면 지난19일 상오7시께도 가스냄새가 심하게나 상인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는데 유출경위에대한 조사가 되지않아 큰사고가 나게 됐다는 것이다。



◇가스누출 1週前에 폭발사고현장의 가스누설경보기。1주일전부터 가스가 새나왔으나 가스누설경보기는 벙어리였다。



◇大型화재日誌 지난10년간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고는 다음과 같다. ▲71년12월25일=大然閣호텔 ▲72년12월26일=光州현대양행 ▲73년12월30일=서울城東시장지하상가▲74년12월23일=서울東大門동방호텔▲75년12월29일=仁川대한전선▲76년 1월 3일=부산현대가구▲77년 1월 5일=부산대창운수기숙사 ▲78년12월29일=서울東大門區祭基洞 유진식당▲79년12월24일=馬山금성사▲80년 1월 1일=부산南區동원장여관

복매운탕 中毒 1명死亡 7명重態

25일 하오3시30분께 서울 九老區梧柳1洞 梧柳시장 충남식당(주인 李在福·45)에서 복어매운탕을 먹은 20명중 서용석씨(49·상업·서울 九老區開峰1洞90의43)가 식중독으로 숨지고 김종희씨(46·여) 등 7명은 중태다。

버스·트럭衝突 2명死亡16명부상

【光州=聯合】25일밤 9시15분께 전남靈岩郡新北面金水里앞 국도상에서 광주고속소속 전남5아8145호 시외버스(운전사 金官奎·42)와 마주오던 전남7가5328호 타이탄트럭(운전사 朴珍洙·23)이 정면충돌했다。 이사고로 트럭운전사 朴씨와 옆좌석에 탔던 차주 鄭哲鎬씨(36·光州市東區瑞石洞427) 등 2명이 현장에서 등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사고는 두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은채 중앙선을 침범, 과속으로달리다 일어났다。

學校대항 招請축구 8개亞洲 都市참가 홍콩서 개막

【홍콩25日發=聯合】서울을비롯한 8개 아시아도시가 참가하는 제1차 학교대항초청 축구대회가 26일 홍콩에서 개막됐다고 대회조직위원회 대변인이 밝혔다。

20代여인 알몸變死
洞職員과 호텔投宿, 피투성이로

【釜山=聯合】25일낮12시께釜山市中區瀛州洞 코모도호텔 3층 발코니에서 이호텔에투숙했던 李남희양(22·釜山市西區大新洞)이 알몸으로 숨져있는 것을 孫광일씨(27·釜山鎭區楊亭4洞7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孫씨에 따르면 숨진 李양은 이날새벽3시께 친구 金석규씨(27·中區瀛州2洞사무소직원)와 함께 이호텔10층25호실에 투숙했었는데 상오11시께 金씨로부터『李양이 없어졌다』는 전화가 걸려와 호텔로 가보니 李양이 알몸으로 피투성이가 된채3층발코니에 숨져있었다는것。

李양과 같이 투숙했던 金씨는 지난24일밤 시내에서 孫씨등 동사무소직원들과 함께 청소년선도캠페인을 벌인뒤 동직원9명과 李양등 여자8명이 어울려 T고고홀에서밤늦게까지 놀다 헤어졌는데 사고직후 고향인 南海에 가겠다며 자취를 감추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캐기위해 자취를 감춘 金씨를 수배했다。

손목시계 1億밀수 외항선원 4명令狀

【釜山=聯合】釜山세관은 26일 1억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밀수해온 흥아해운소속 홍콩기화물선 도남2호(1천9백톤) 갑판원 金태오(33·西區南富民洞462) 2갑원 朴도재(32·西區槐亭3洞296) 조리장 尹상복(37·東區水晶洞1029)1기원 崔명복씨(37·影島區東三洞121) 등 이들에게 밀수자금 4만달러를 제공한 林종대씨(36·西區槐亭3洞)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두꺼비 안의섭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 連載漫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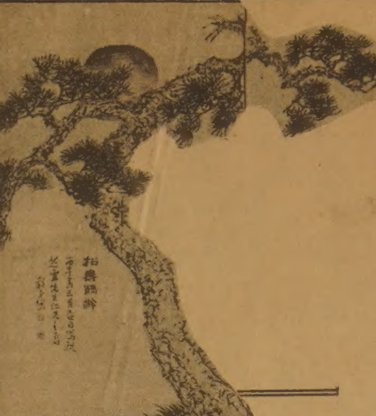
"여보, 당신을 즐겁게 해줄일을 뭣좀하려고하는데…" "정말요?" "그럼… 뭐든지" "그럼 차고좀 청소해 주시겠어요?" "나는 당신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고 했지, 황홀하게 해주고 싶다곤 하지 않았어!"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학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영

한국일보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謹賀新年

밝은 새해를 맞아 존당의 만복과
하시는일 번창하시기를 비오며
삼가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팔목시계의 선구자"

ROLEX WATCH OF CANADA LTD.
PRESENTED BY GOLD FINGER

534—7791 , 534—9977
620 A BLOOR ST. W.

은하보석상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웨이츄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 TOR. (미치 레스토랑)
☎: 924-7501

남자 스토아 헬퍼구함
FULLTIME
☎: 447-2116 MR. 윤

착실하고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 742-0800
(렉스데일 & 이스링톤)

"송규석"씨 연락바람
충남 천원군 병천고등학교출신 김진영씨 요망.
연락처: 몬트리얼(514)484-2906 조병화

매매및 양도

듀폰 수퍼마켓 매매 아스킹: $5000+인벤토리
☎: 537-0982
(엘리나 SAM에게 연락요)

베이뷰 & 핀치하우스 4베드룸+훼밀리룸 지하실,
FIRE PLACE, 2개 가라지. 아스킹: $189950
☎: 221-9338(7시PM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650
☎: 656-7753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짧은시간의(10:00AM~6:00PM) 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등 여러종류 취급. ☎: 낮(656-6660), 밤(224-2227)

구 혼

구 혼: 31세남, 유학생으로 현재대학원 재학중임
〈전공: M. B. A.〉
☎: (213) 383-2518 〈L. A. 저녁시간요〉

구 혼: 1957년생(25세), 키167cm.
직업: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534-9660

집·방세·하숙

분위기좋은 방, 세나 하숙합니다. 교통편리, 큰창문
☎: 532-9139(Mrs. 조)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533-2364

사무실 렌트합니다.
631A BLOOR ST. W.
☎: 535-8801

※안내광고 내시는 요령
체크나 모니오더를 동봉하시고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우편접수후 다음날부터 즉시 게재됩니다.
2줄 1칸(50자 이내)
○ 3 회…$ 10.00
○ 5 회…$ 13.00

보내실곳: THE KOREA TIMES
(AD. Dept.)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6H 1Z7
※크레딧 카드로 신청하시면, 전화접수도 가능
(416)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집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 B) 532-7094, R) 248-2437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346(R) MR. LEE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431-0102 미스타 박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270-3118 오현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집, 가게, 공장) 김부원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식 품 점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1662 JANE ST., WESTON, ONT.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국식품
본점: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10AM-10PM, 정기휴일: 화요일
서부: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10AM-10PM, 정기휴일: 화요일
동부: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9AM-10PM, 목 금 토: 9AM~12PM
일요일 영업: 11AM~7PM
배달도 가능 합니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al Representative
☎: 222-4662 김 수 홍

양 장 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532-5394(B), 742-0737(R)

샘터의 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약 국

SUPER×DRUGS
☎: 368-2746
조 남 오

돈밀약국
☎: 429-4117
이 요 한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길 진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츄리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B)651-9324 (R) 226-5430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95 KEELE ST. TOR. ☎: 762-8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255-2111(B), 828-5001(R)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534-1085 김 춘 할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 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274-4323
50 BLOOR ST. W. ☎: 967-7121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536-7875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어 정 용

정은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콜레어리)
꽃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수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광고는 기업성공의 지름길 입니다.
문의처, 533-2361

한 방 원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보광한약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439-6717 김 남 집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R.I.A. 김인규
ACCOUNTING & TAX 844-0178

KIM'S & ASSOCIATE
인컴텍스, 어카운팅(노스·욕 AREA)
☎: 669-2710(김연수, 김명숙)

기 타

번역·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합니다

ZAP SUREKILLER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 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537-0432 미스타 리

謹賀新年

하르빈한약 상사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0년 중국하르빈에서 왔습니다.
20년간 한의사 경험를 토대로 교민여러분께
봉사하게 되었읍니다. 한의학. 침술등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를 모시고자 합니다.

서 춘 봉 올림

◎중국의과대학 졸업(1954년도)
◎만주하르빈 한의대학 졸업(1958년도)
◎침술학연구20년(하르빈)
◎중국의사자격증 소유
◎하르빈한의대학교수(20년간)
◎중국암연구소 진수(천진)
◎중국흡충병(디스토마)연구소(상해)
◎5개국어 능통(중국어, 일어, 몽고어, 소련어 한국어)

1. 오랜 경험으로 침술(반신불수, 신경마비증, 신경통등)
2. 암, 정맥염, 당뇨병, 성쇠약증, 신장염, 간염 등 치료경험 20년간
3. 아동, 노인, 부인들의 건강과 한약, 보약연구(20년간)
4. 한약으로 암을완치(사향, 우황, 진주등 귀중한 한약재료)
5. 한약, 보약은 사람들의 건강과 수명을 연장합니다.
6. 한약은 중국본토직수입(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 등)
7. 정확한 한의사 진단과 한약처방

1982년1월9일(토) 개업

주소: 643a Bloor St.W. (신용조합 옆)

전화: (B) 536-6854 (R) 743-0752